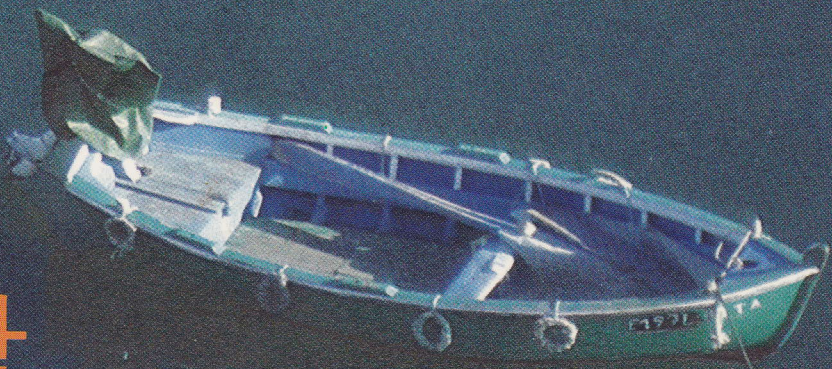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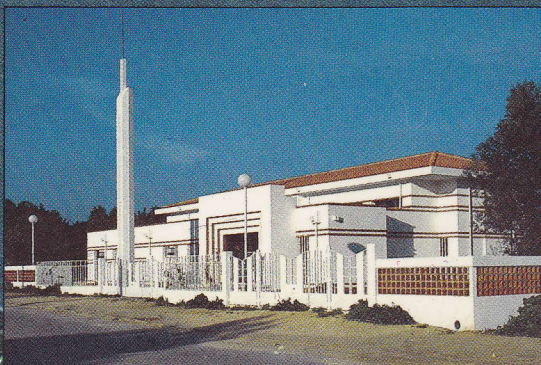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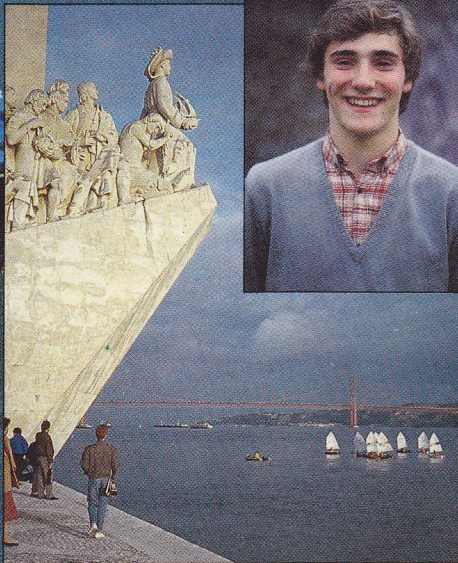


# 성도의 벗 2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폴투갈

88년 2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벗 어린이란

# 성도의 벗

1988년 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2권, 제24권, 제2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단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2KO  
PRINTED IN KOREA 2/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w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폴투갈의 성도들을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루었다. (27페이지 참조)

##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38	나와 당신-결혼생활에서
	천국 가정-영원한 가족		누가 먼저인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스티브 에프 길러랜드

## 7 방문 교육 메시지 : 청소년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42	미묘한 균형
			글렌 엘 페이스 감독

8	물문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47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집짓기
	아레스 지 캡, 조셉 지 시 정		

## 12 “내 생명을 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벗 어린이란

	메트 한센	2	이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	-------	---	---------------

15	용서에 관해 자녀들에게 가르침 :		제나비 알그린
	부모를 위한 지침	3	심심풀이

18	질의 응답	4	다 함께 나누는 시간 : 신앙의 나침반
	보 베너룬트, 한 인상, 줄리오 다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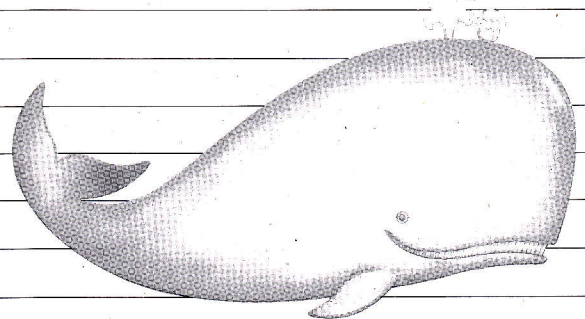
21	진정한 위대함		팻 그레이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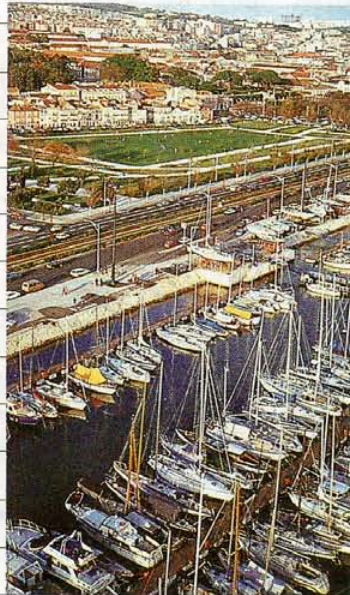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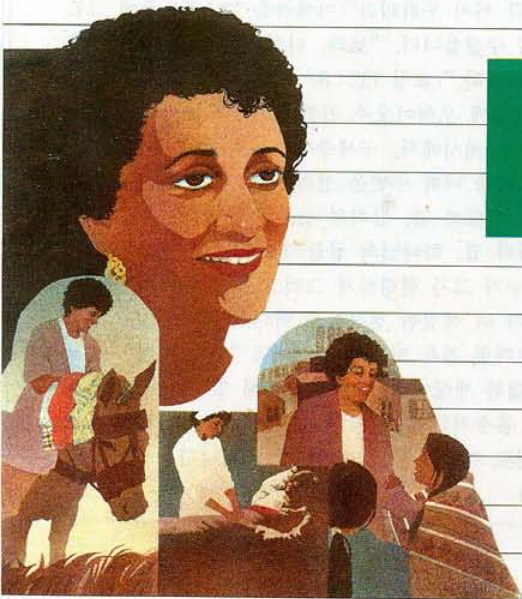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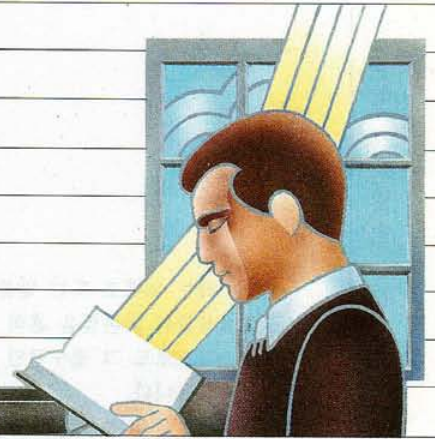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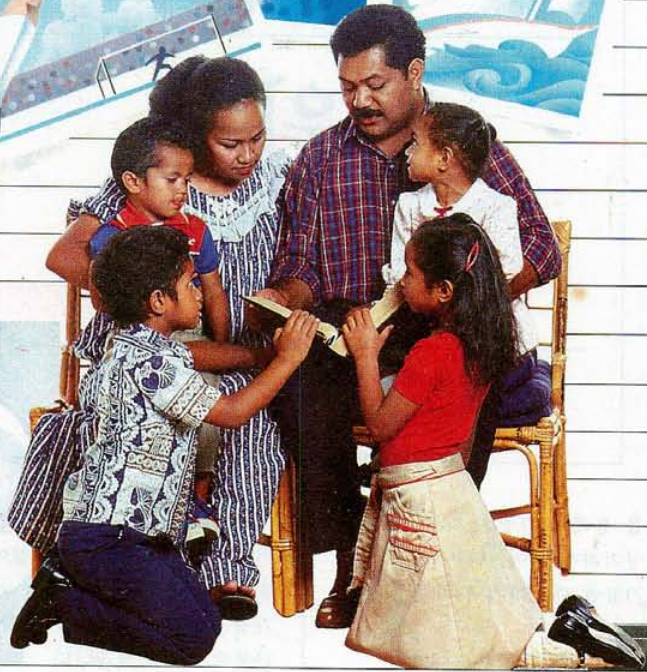
25	니파이와 탈출 : 물문경 연구	6	일지를 씁시다
			진 더블류 피트먼

## 27 폴투갈의 성도들 교회 및 지역 소식

돈 엘 서얼

35	말일의 여성들.		
	켄 언더우드 편보로우		







# 천국 가정 영원한 가족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노래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본임을 흔히 상기하게 되며, 다른 어떤 제도로도 그 필수적인 기능을 대신하거나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집은 나무나 돌 또는 벽돌로 지어집니다. 가정은 사랑과 희생과 존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은 가족을 보호해 주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오래 된 가정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상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피곤과 나태와 점점 더 낙후되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이 고루 있을 수도 있으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영원하므로 가정은 항상 계속됩니다.

## 위대한 설계자에게서 배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천국을 현재의 가정에 좀더 가깝게 이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계자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현재 경건하게 성지라고 부르는 도시와 마을의 먼지나는 흠길을 걸어 다니시며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는 흔히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주 가정을 건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25) 후에 그는 이렇게 주의시켜 주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교성 132:8)

1832년 12월 27일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 88:119)

우리들 중에 누가 그가 현명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지을 수 있게 하신 것보다 더 적절한 청사진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한 집은 마태가 말한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이 험한 세상에서 도처에 산재해 있는 폭우와 같이 퍼붓는 역경과, 홍수처럼 밀어 닦치는 반대의 물결과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건디어 낼 수 있는 집이 됩니다.(마태복음 7:24~25 참조)

혹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 생활에도 적용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는 가족 즉, 가정의 위대한 설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는 건축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몇 가지 지침, 생에 대한 교훈, 우리가 짓기 시작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무릎꿇고 기도함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이와 같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현명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미대륙에서 니파이의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두터운 신앙으로 구하라.”(야곱서 3:1)

이 거룩하게 영감받은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의 박사들의 사무실에는 정서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혼 법정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날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의 노사 위원회는 문제점을



**주**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시간이 없다.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만을 취급하는 일을 맡은 어느 직원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책상 앞에 조그만 표찰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기도해

보셨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자신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을 경감시키며, 더 많은 범 죄를 방지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에 주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충고를 들려주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판사는 세계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범죄와 위법을 줄이고 우리 생활과 우리 국가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려깊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 관습인 가족 기도의 관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제안합니다.”

가족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옛 관습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온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물러 지낸다”는 격언 뒤에는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21)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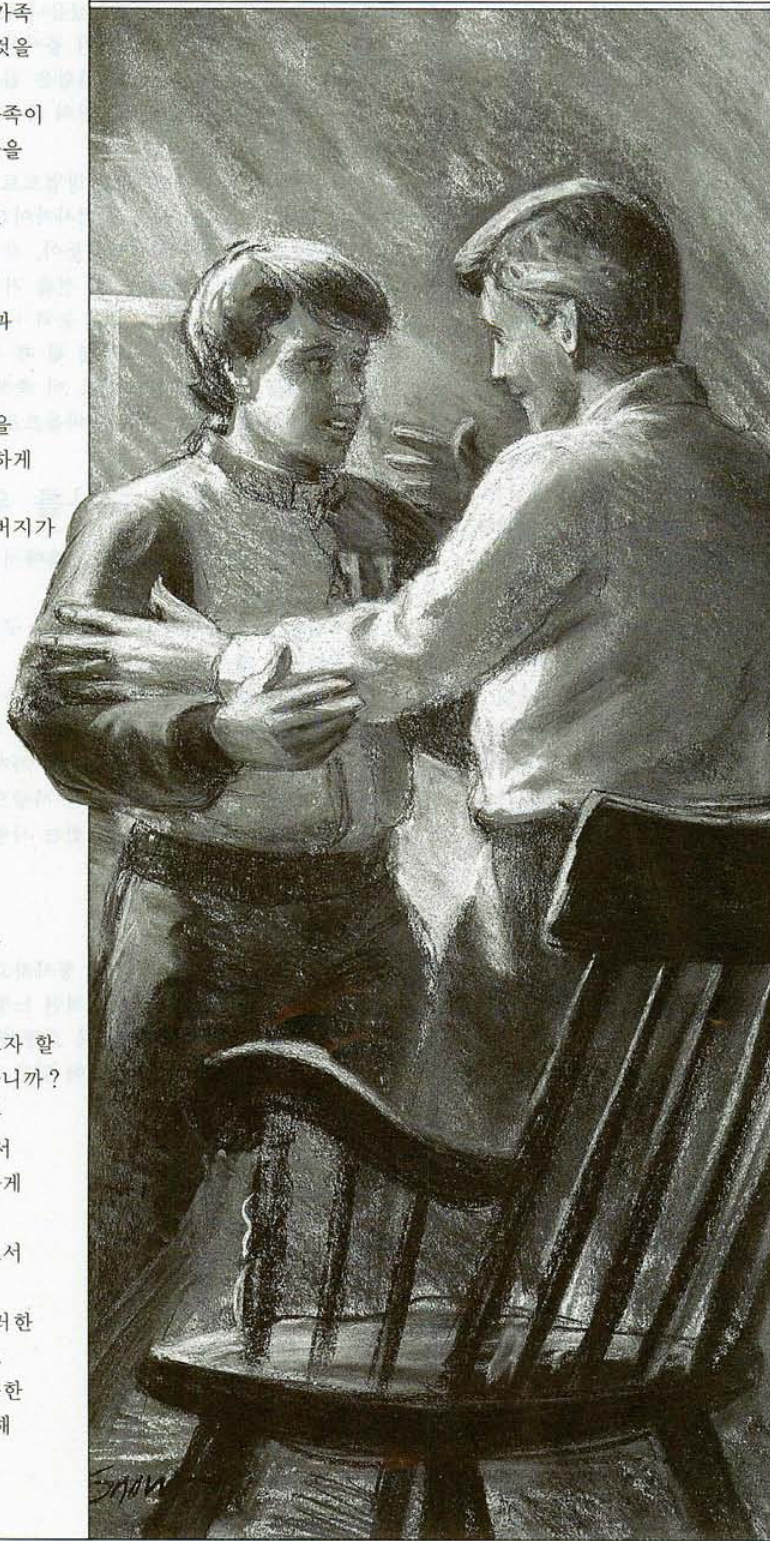
SNOW

기도는 좀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더 많은 고통을 경감시켜 주며, 더 많은 범법을 방지하게 해주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인간들의 영혼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진리의 좁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팔을 벌리며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대를 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족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전형적인 말일성도 가족이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습니다. 따스한 사랑과 단합과 화평의 영이 온 집안을 채웁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의 명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는 아버지가 귀한 아들의 기도를 존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이 상대를 선택하는 데서 영감을 받도록 하고, 성전 결혼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십대의 딸이 듣는다면, 그 딸은 자신이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 겸손한 간구를 존중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이 그 가족 내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합당하게 생활하여, 때가 되면 교회에서 주님의 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열심히 간구한다면, 그러한 아들들이 어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불타는 듯한 소망을 간직한 채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족 기도로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든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에 귀 기울이기를 게을리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기도는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무릎을 꿇고 있을 때보다 결코 더 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꺼이 봉사함

우리는 봉사의 본모기를 주님의 생애에서 찾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예수의 생애는 선행으로 밝게 비치는 서치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절름발이의 사지에 힘을 주시고, 장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비유는 힘을 설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으로 끌려 온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중에, 그는 동정어린 이해심을 가르쳤습니다. 달란트에 관한 구세주의 비유에서, 그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향상하고 온전케하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우리의 역할을 위해 준비하도록 얼마나 잘 준비시키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상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과 그가 속한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은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의 부친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때의 정황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임신 중의 아내와 일곱 자녀와, 농장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잃었을까요? 벤슨 대관장은 그의 모친이 가족을 부엌 식탁에 모으고, 깜박이는 램프 밑에서 남편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 준 것을 말해 줍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몇 번씩이나 멈추고서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자녀들이 후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모두가 기꺼이 봉사한 것이었습니다.

#### 구원의 손길을 내밀

인생의 길을 따라 가다가,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막다른 곳으로 이르는 우회 도로를 찾게 될 뿐입니다. 무관심과 부주의와 이기심과 죄악은 모두가 인간을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나, 모반해 나간 많은 가족들은 후에 다만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1985년이 끝나갈 무렵에, 대관장단에서는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며 “돌아오라는 권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활동하기를 그치고 비판적이 된 분들에게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돌아 오십시오.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는 사랑스럽고 만족스런 열매를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실천에 옮기는 데 어색함을 느끼고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맞아 들이며, 기꺼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손길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초대장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결속시키는 끈이며,

치유시키는 방향제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결코 사랑하기를 중지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교성 42:45)고 명하셨습니다.

무릎꿇고 기도하십시오. 기꺼이 봉사하십시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도와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집을 가정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청사진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청사진에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숨씨를 다해 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건축의 검사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건축가였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열왕기상 9:3)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가정과 영원한 가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은 역경을 견디어 내고 가족 구성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 기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고통을 덜어 주며, 많은 범죄를 막아 주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듯이 봉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힘을 가져다 줍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무릎꿇고 기도하며, 기꺼이 봉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에 대하여 말한다. 가족에게 그들의 느낌을 말하도록 요청한다.
2. 이 기사에서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구절이나 인용문이 있는가?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목적 :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정의에서 첫번째 특성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낄 때라도, 참고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은 우리에게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 각 곳에서 참을성있게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날마다 애정을 지니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며 또는 정성껏 노부모를 돌보아 드리는 여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 친절과 존경심으로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변함없이 돌보아 주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합니다.” 하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며 행동이 예절바릅니다. 그에게는 도움을 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노인, 어린이, 동물, 신분이 높은 사람뿐 아니라 낮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푹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2페이지)

우리는 매일 같이 인내하며 친절한 행동을 해야 하는 수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 회원들에게 친절을 표시하지 못하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우리 자신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셨던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 : 1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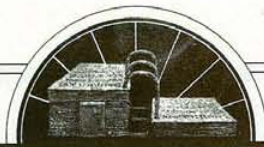
예수님은 많은 대중이든 한 개인이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 신체적으로 위안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천 명을 먹이셨으며, 그의 옷자락에 닿는 작은 손길도 감지하시고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요한복음 6 : 5~14 및 마가복음 5 : 25~34 참조)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중에도 그의 어머니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요한복음 19 : 27)

속죄의 치유함을 통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표현은 우리의 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을성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며, 보다 그와 같아지게 됩니다.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조그만 친절한 행위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2. 교리와 성약 121편 41~42절을 읽고 자매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좀더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기타 자료는 가정의 밤 자료집, 74~79페이지 참조)



물몬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 “나는 이 사실을 안다!”

아테스 지 캡

**나**는 지금도 내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주신 물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청녀 시절에 물몬경을 읽었던 때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 전에 그 책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에 더욱 일치했거나, 좀더 열심히 연구했다든가 더 간절하게 기도한 때문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당시 나는 물몬경이 참된 것인가를 스스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신앙에 관한 놀라운 구절이 들어 있는 엘마서 삼십 이장을 마쳤을 때, 나는 성신의 증거를 인식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물몬경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것을 말해 주고 싶었으나, 혼자였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페이지의 맨 위에 다 빨간 색으로 큰 별을 그리고 “5월 31일, 오전 7시 30분. 나는 이 사실을 안다. 그것은 마치 내게 씌어진 것이나 같다.” 그리고 한쪽 편 여백에

“나는 확인을 받았다. 나는 물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썼습니다.

다른 편 여백에는 “한 달 전에 나는 더 분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 매주 화요일은 금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안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너무나도 자주 물몬경에서 인도와 권고를 구했으며 이 책을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나의 증조 할머니로부터 내게

**나**는 물몬경을 공부하면서 물몬경에 대한 나의 사랑이 간증으로 참으로 강해서 거의 자신의 생을 그것을 위해 희생했던 증조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굳게 되었습니다. 물몬경이 나의 증조 할머니이신 수잔 켄트의 집에 전해진 것은, 거의 일 세기 반 전으로 할머니가 열여섯 살 때였습니다. 물몬경을 읽고 난 수잔은 물몬경에 대하여 너무나 큰 간증을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수잔과 약혼한 청년은 물몬교에 들어가는 사람과는 누구든지 절연을 하려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잔은 포기할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간증을 위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하여 결국은 혼절 상태에 빠져 거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장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깨어나 “내가 얼마나 오래 잤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그녀는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물몬경에 대한 나의 증조 할머니, 수잔 켄트의 간증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과 지금의 나의 인생에 주는 의미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감독님이 나에게 우리 와드 내의 모든 젊은이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물몬경을 모두 읽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책을 읽고 발표를 하면서 한 해를 훌륭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물몬경이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과 분노와 신앙의 부족을 극복해 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몬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죄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복음의 모든 의식과 성약을 통하여  
마련하신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방법과 용서하는 방법 그리고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이 되며  
언젠가는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며, 신앙으로 행하기를 배웁니다.

물몬경은 나의 신앙의 닻이 됩니다. 내게 가장 값진 재산이 된  
그 책과 그리고 간증을 갖게 해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물몬경에 있는 진리를 연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사의 간증을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물몬경은 이 험하고 위험이 많은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

아테스 지킵 자매는 청녀 본부 회장이자.



# “그 책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조셉 지시 정

**내**가 열여섯 살 때 선교사들이 나에게 물몬경을 읽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내게 침례받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강한 간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몬경을 읽거나 교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좋지 못하거나 평화롭지 못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나는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서양”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 나는 내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내가 말일성도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내가 흰 종이로 물몬경을 싸서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과연 물몬경이 참된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알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어서시었으되 우리가 큰 기쁨에 취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여 일어서라 하시니,  
“그제야 우리가 땅에서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니파이삼서 17:17~21)

나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은 주께서 내게 대하여 품고 계신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는 당신이 살아

계심을 아웁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됨을 압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라는 것을 알았웁니다.  
기쁨에 넘친 나는 물론경의 흰 포장을 벗겨 버렸웁니다.

그 즈음에 나는 또한 복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웁니다. 해군에서 이 년간 복무하고 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웁니다. 나는 한때는 부끄럽게 여겼던 물론경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었고, 모국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웁니다. 나의 선교 사업은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를 넓혀 주었으며 회복된 진리에 대한 간증을 깊게 해주었웁니다.

나의 아내와 나는 성전에서 결혼했웁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 함께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웁니다. 우리 사이에는 현재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이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나 그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엘마서 31:5)□

조셉 지 시 정 형제는 타이페이(대만) 동 스테이크 부단장의 제2보좌이다. 그는 타이페이에 있는 교회의 번역부장이다.

**구** 세주가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신 것을 읽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니신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차게 되었으며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깨닫게 되었다.





# “내 생명을 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위안을 주시옵소서”

메트 한센

1968년 10월 어느날  
쌀쌀하고 비내리는  
황혼 녘에, 나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직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남편은 캐나다에 출장을 가 있었으며,  
열 살 난 아들과 일곱 살 난 딸,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가 나  
있는 매우 혼잡한 사 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다. 안전을 위해서 나는  
교차로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옆에 끌고 걸어 가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 그 특별한 날에 도로의  
중간쯤 건너 나는 멈춰 서서 차들이  
지나가게 했다. 오른 편에서 조그만  
차가 서더니 나에게 건너 가라고 신호를  
했다. 조그만 차 옆에서 큰 트럭도 멈춰  
서서, 그 운전사도 나에게 건너 가라고  
신호를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건너 갔다. 내가 막 트럭을 지났을 때  
나는 폭스바겐 차가 전 속력을 내며  
불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달려 오는  
것을 보았다. 뒤로도 앞으로도 전혀  
피할 여지가 없었다.

순식간에 나는 내 아이들과 남편과  
홀로 계신 어머니와 직장의 일이 머리  
속에서 어지럽게 오갔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다. “제발,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되든지—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차가 자전거를 부딪쳐, 손잡이가  
내 몸의 왼쪽 옆구리를 쳤다. 나는 길에  
힘없이 쓰러져서, 고통이 심해 숨도 들  
수 없었으나,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내가 머리를 돌려 보니, 폭스바겐 차  
바퀴가 거의 맞닿아 있었다. 자전거를  
바라보니, 그것은 충돌로 인해 저만치  
튀겨나가 있는데 원래의 크기의 반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기적을 경험했음을  
확실했다. 타이어가 거의 맞닿아  
있었으나, 그것이 내 머리를 부딪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세웠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길에 누워 엠블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집에 가지 못하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응급실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기관이 문을 닫기 전에 전화를 걸 수  
있을까? 누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항상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웃 사람들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고, 워드 회원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부산한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직원들은 X-레이를 찍기 전에는 내게

전화도 걸지 못하게 했다. 네 시간이나  
지나서야 경찰관들이 와서 사고 경위를  
작성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길고 긴 다섯 시간  
동안 나는 병원에서 나를 도와 주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 싸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느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나의 유일한 관심사인—어리고 외로운  
두 아이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하고 나는 기도했다. “아이들이 무서움에 질리지 않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인내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 주십시오.” 나는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모든 것을 감싸는 평안이 나의 마음에 가득했으며, 나의 아이들도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의사는 나에게 늑골이 상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는 외에는,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다고 하며, 가도 좋다고 했다. 경찰관 두 명이 나를 집에 까지 태워 주어, 우리는 그날 밤 열 시 십오 분에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다.

어리고 피곤에 지친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손과 손을 잡고 경찰차가 있는 곳으로 왔다. “엄마, 어디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왜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 오자마자 질문을 해 냈다.

나는 설명해 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집에 왔지?” 하고 물어 보았다.

아들이 말했다. “우리들은 왜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엄마가 직장에서 늦는 것으로 생각하고 걸어서 집으로 왔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나,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집으로

들어 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잘 계신다. 엄마는 돌보심을 받고 계시다. 엄마가 집에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밖은 곧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나 조용히 있거라.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아파트 근처에서 잘 놀고 있거라.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빨리 흘러서 어머니와 다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내게 말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위를 쳐다 보았으나, 나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평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해를 지나 오면서 나는 아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때때로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다. 때로는 어려운 때에 쉽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의심하게 된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묻곤 했다. “내가 사고를 당하던 날 밤에 내게 일어났던 일을 너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 그의 얼굴에서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이런 말을 하고는 했다. “어머니,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아들이 이러한 경험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

메트 한센은 회계의 일을 하고 있으며 헌터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헌터 제삼십일 와드에서 음악 지휘자로 일하고 있다.



“나 는 내 머리를 만지는 손길을 느꼈으며 위안의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를 들어 보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 용서에 관해

## 자녀들에게 가르침:

### 부모를 위한 지침

**성** 인들간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물며 어린

자녀들이 흔히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생활은 분노와 불쾌한 감정으로 중독될 수도 있다. 상처로 굳어 버린 감정은 누적되어 더 커지게 되고, 한때는 사랑했던 관계가 복귀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어떤 가족에서는, 다 큰 형제 자매들간에 사소한 면에서 감정을 상하게 된 것을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용서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에 대한 그러한 악감정을 마음 속에 그대로 품고 있다가 결국은 이혼으로 끝장이 나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에 너무도 흔히 보게 되는 비극이며, 비난은 자칫 용서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용서의 원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가장 잘 배우는 교훈은 모범과 계율의 두 가지 면에서 가르침받는 것이다. 그들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단순히 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용서가 어떻게 가족간에 조화와 사랑을 갖게 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는 일

용서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 정직하게 용서하도록 힘쓰기로 합의하고—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단 어떤 일이 끝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해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또한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다. 과거의 상처를 되살리는 것은 단지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기에 앞서, 부모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볼 수 있다.

자녀들과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들의 큰 관심사를 이야기하는가?

자녀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부모에게 털어 놓는가?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활동, 친구, 느낌 및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은 정직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그들의 비행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가?

마지막 질문이 핵심이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잊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용서의 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 소통은 빈약하게 될 것이며, 부모는 가족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를 가르칠 준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할 것이다.

#### 자녀의 불안과 관심사

자녀는 용서해 주는 부모에게는 자신의 불안과 관심사를 말하기가 아주 쉽다. 거칠게 비난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문제점을 나누지 못하게 되며 서로 사랑하고 배우는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의 원리 역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자녀가 친구나 형제 자매와 불화할 때마다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귀중한 기회를 부모는 갖게 된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든 또는 상상으로도, 누구든 자녀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화를 낸다면, 그 자녀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가 기분이 어떤가를 물어 본다. 분노나 원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것 이상으로 감정이 상하게 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 자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말다툼은 우정을 해치며,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할 수 있다.

자녀가 화를 풀고 그가 화를 낸 사람들과 다시 친구가 되고 난 뒤에, 그에게 다시 느낌이 어떤가를 물어 본다. 그에게 용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같이 좋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 9)

#### 현대의 비유로 가르침

성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물몬경에도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예가 나타나 있지만, 그 원리는 또한 현대의 비유로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도의 벗에 나온 “주머니에 가득 찬 자갈돌”은 어린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흥미있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그를 화나게 하고 성나게 할 때마다 주머니에 자갈돌을 집어 넣기 시작한 말콤 텐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 자갈돌은 그에게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었으며, 그 당사자에게 자신이 화를 낸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신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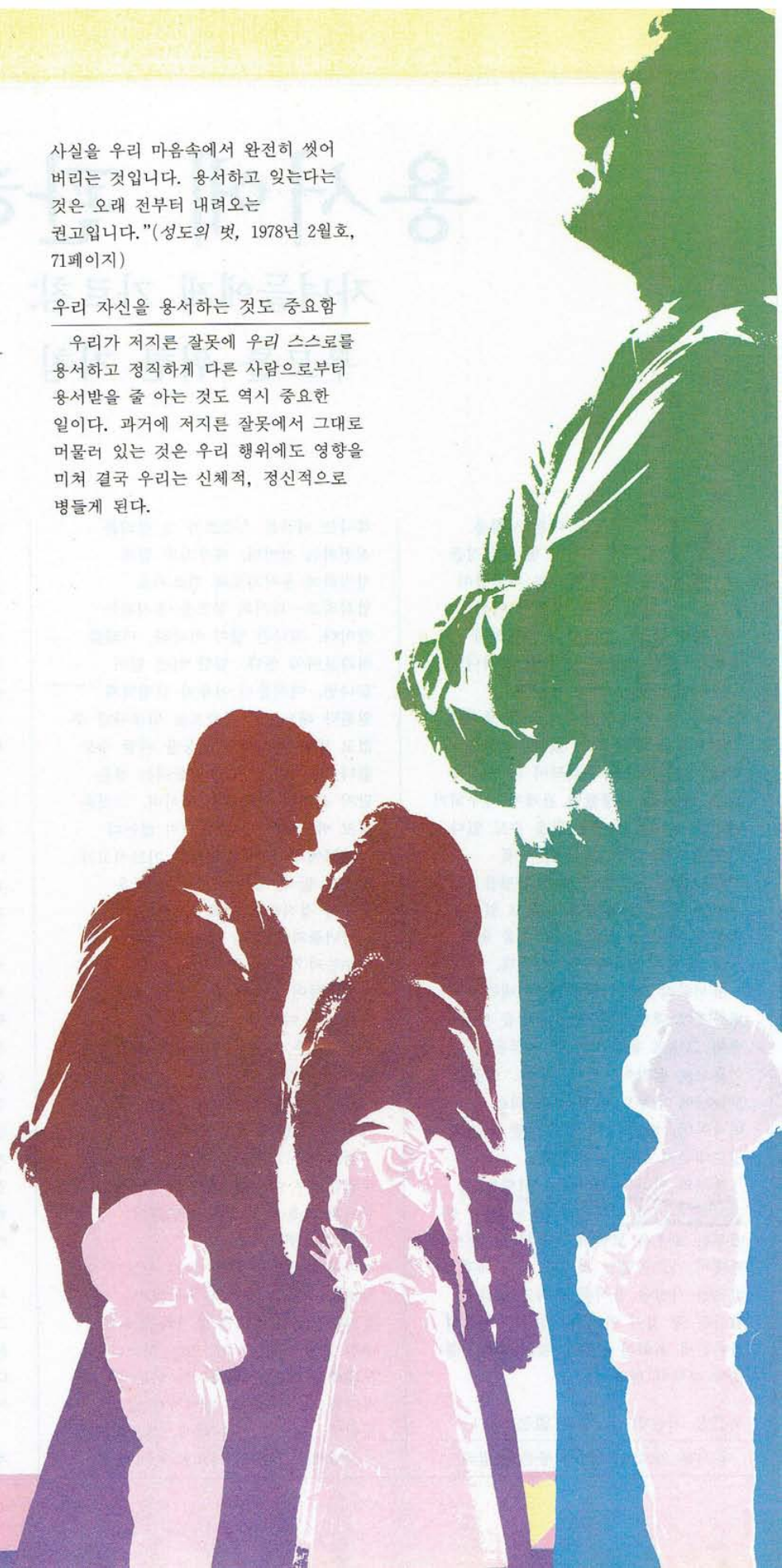
상기하기 위하여 말콤이 수집한 돌은 그의 주머니에서 넘쳐 흘러 그의 집안 여기 저기에 굴러 다니게 되었다. 그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던 다른 시합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상징인 이 돌은 그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용서란 우리가 피해받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권고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71페이지)

####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함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된다.



사실은 용서란 우리가 피해받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권고입니다.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71페이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자책감이 지나쳐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일단 회개가 있는 다음에도 우리가 행한 그릇된 일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진실로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와 십대들에게 그것은

월런 앤더슨 사진

중대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과거의 행동을 올바른 견해로 바라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밟아온 조치는 결코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며 행복한 생활에 대한 설계는 영원히 망쳐졌다고 믿을 수도 있다. 부모가 의사 소통의 통로를 열어 놓고 자녀가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그들의 문제점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쫓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랑과 이해가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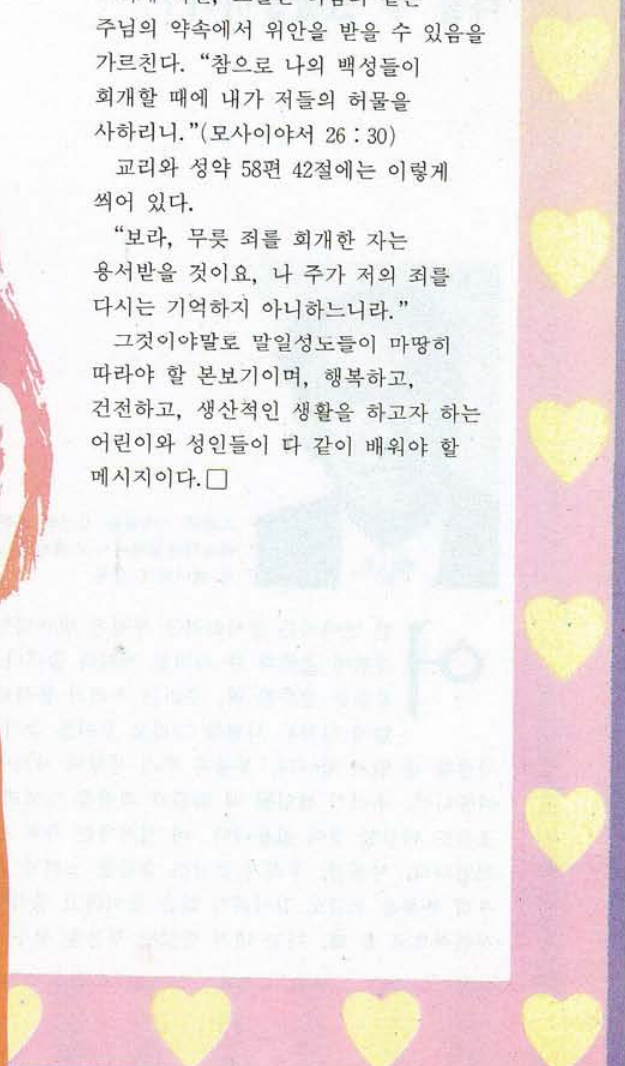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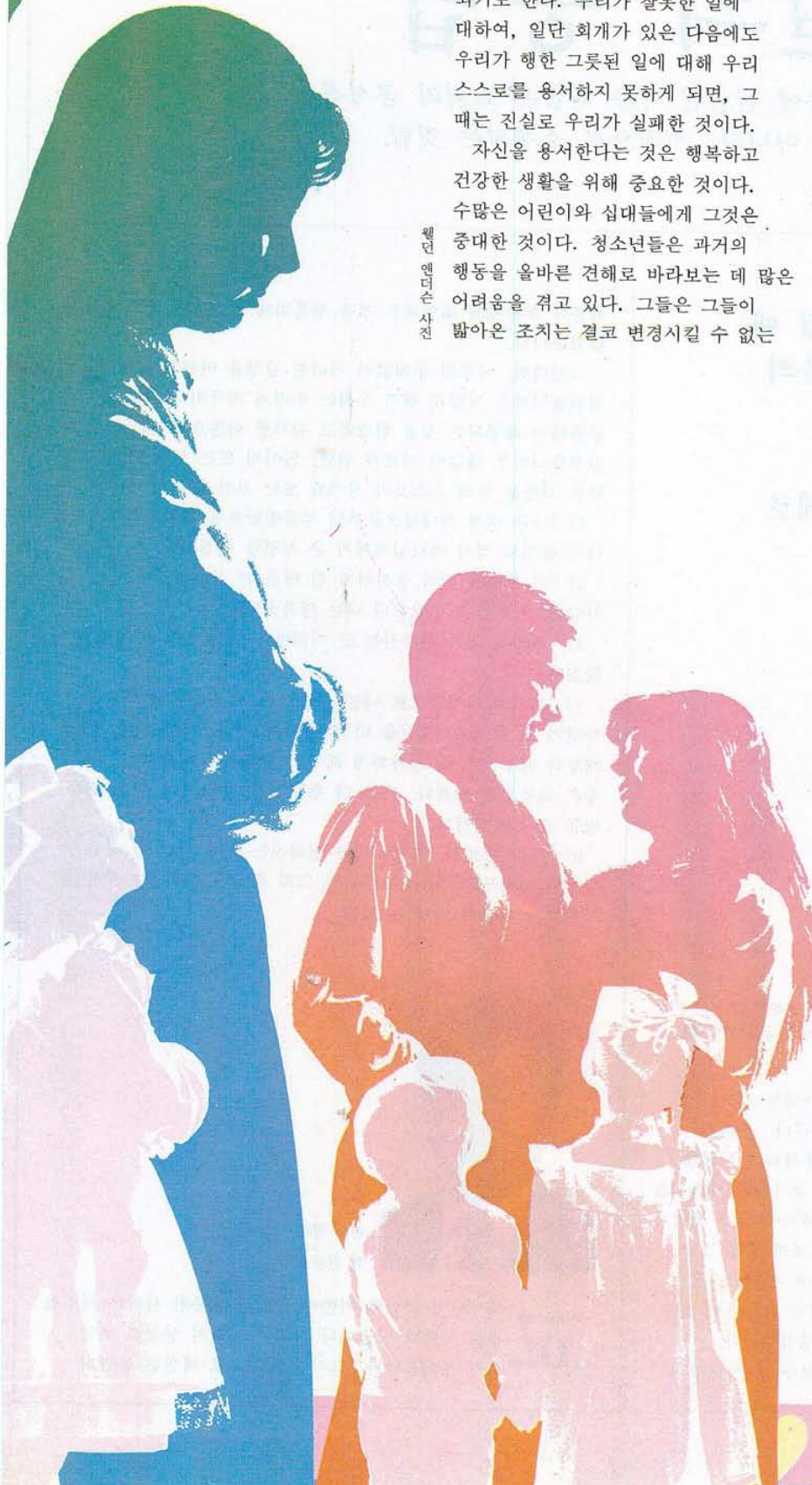
#### 회개의 과정을 가르침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첫번째 단계는 회개의 과정, 즉 주님께 그리고 적당한 때에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하고; 가능한 한 피해받은 사람에게 보상하고; 처음에 죄로 이끌었던 습관이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이 일단 회개했음을 마음 속에 느끼게 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참으로 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저들의 허물을 사하리니.”(모사이야서 26:30)

교리와 성약 58편 42절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야말로 말일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본보기이며, 행복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성인들이 다 같이 배워야 할 메시지이다. □



# 질의 응답

일반적인 복음에 관련된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임.

때때로 교회 부름에서 해임될 때 좌절감과 당혹감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분노하게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의 인봉자 및 스웨덴 바스터하닝게에서 스웨덴의 공보 책임자인 보 베너쿤트 형제

**어**떤 면에서든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축복과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부름을 완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부름은 우리 생활에 자극이 되고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가 해임될 때 슬픔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금도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부름을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받았던 부름을 모두 다 사랑했기

때문에 부름에서 해임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극히 사랑한 부름에서 해임되는 것을 합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해임이 이르게 되면,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다음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1)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해임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한다.
- 2) “이 부름을 받아 봉사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었다. 그 사람이 그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하다.
- 3)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곳 이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있지 않겠다.
- 4) “여기서 해임됨으로 나는 집안일에 더 충실한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 좋은 조부모가 되겠다. 나는 더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가 되겠다.
- 5) “나는 주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 한 나는 행복할 것이므로, 앞으로 주님과 그의 종들이 부르시는 부름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한국 서울, 한 인상 형제

**교**회에서의 경험의 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해임을 관료 사회의 강등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보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숫적으로 제한된 총관리

역원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끊임없이 새로운 부름이나 “해임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내의 책임에서 해임되는 것을 사실상 다른 형태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해임 접견은 해임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견시에, 지도자는 주님의 교회에서 해임은 실제로 다른 면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해임과 감사의 지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해임되었음을 아는 회원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또한 지도자가 모임이 시작되기 직전에 해임이 될 것임을 알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해임으로 인해 나쁜 감정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줄리오 다빌라 지역 대표

**우**리가 지도자들을 받고 순종하는가는 부름과 해임을 통해 시험받게 됩니다. 나는 내가 지부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해임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겠다는 유혹을 받았던 일이 생각합니다. 지방부장에게 말씀드리러 가던 길에 나는 내게 오는 우편물을 가지러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그 우편물 중에는 최근호 리아호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나는 데이드비 오 맥케이 대관장의 메시지에 눈길이 멈췄는데, 거기서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나는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방부장과 약속을 지켰으나, 그날 오게 되었던 원래의 이유는 결코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부름에 관한 여러 가지 권고를 들려줄 것을 요청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몇 년 뒤에 지방부장이었던 형제가 내게 물었습니다. “다빌라 형제님, 여러 해 전에 형제님이 보고타에 있는 나의 집에 오셨을 때, 실제로 내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해임을 요구하려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형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았습니다. 형제님이 전화로 시간을 내 달라고 전화를 한 이후로 우리 집에 도착하시기까지 오는 도중에 형제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줄곧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지도자들은 영감을 받으며, 우리는 겸손하게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름이나 해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자신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자신이 지명받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느끼게 될 때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임은 형벌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권고와 도움과 경우에 따라서는 꾸짖을 수 있으나, 그 후에는 더 큰 사랑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1 : 43 참조)

우리가 해임에 대하여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조심스럽게 키워 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부름은 어떠한 것이든,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모세서 1 : 39) 주기 위해 돕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라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름과 해임을 주는 지도자는 주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



“오늘날의 많은 영웅들  
강한 자, 부유한 자  
그리고 영화 배우를  
포함한 화려한 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가치가 있을 인생사에  
좀더 분명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진정한 위대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경원회 회장 대리

**망**

은 말일성도들은 행복하며 인생이 가져다 주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 중에는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생활을 해 왔으나, 세상적으로나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루어 낸 것을 자신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을 품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생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함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 세상의 영웅

우리는 나름대로의 위대함을 숭배하며

그 나름대로 영웅을 만들어 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열 여덟 살에서 스물 네 살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조사에서 오늘날의 영웅으로는 강한 자, 부유한 자 그리고 영화 배우와 연예인들을 포함한 화려한 자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등장하며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기록을 경신한 운동 선수들, 놀랍고도 새로운 발명품을 고안해 낸 과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명을 구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재능을 타고난 음악가들과 예술가 및 건축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치아와 흠없는 미모를 갖춘 사람들을 그리고 유행되는 옷을 입고, 무엇이든 “성공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대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정의를 접하게 되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또는 어떻게 생각되는지—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일은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흔히 불공정하고 부정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족감이나 합당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실패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한 느낌은 우리를 항상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참된 위대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삶의 일면을 무시해 버리게 합니다.

190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참된 위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범하고 놀라우며,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참다운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목표로 성립하여 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의 성공보다 더 위대합니다.”(복음 교리, 256페이지)

“우연한 위대성”과 같은 것은 없음  
이 말은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으로 성임하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 말에는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아들, 딸이 되며 훌륭한 학생이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위대한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는 구십 오 세를 일기로 별세한 날 아침 시간에 첼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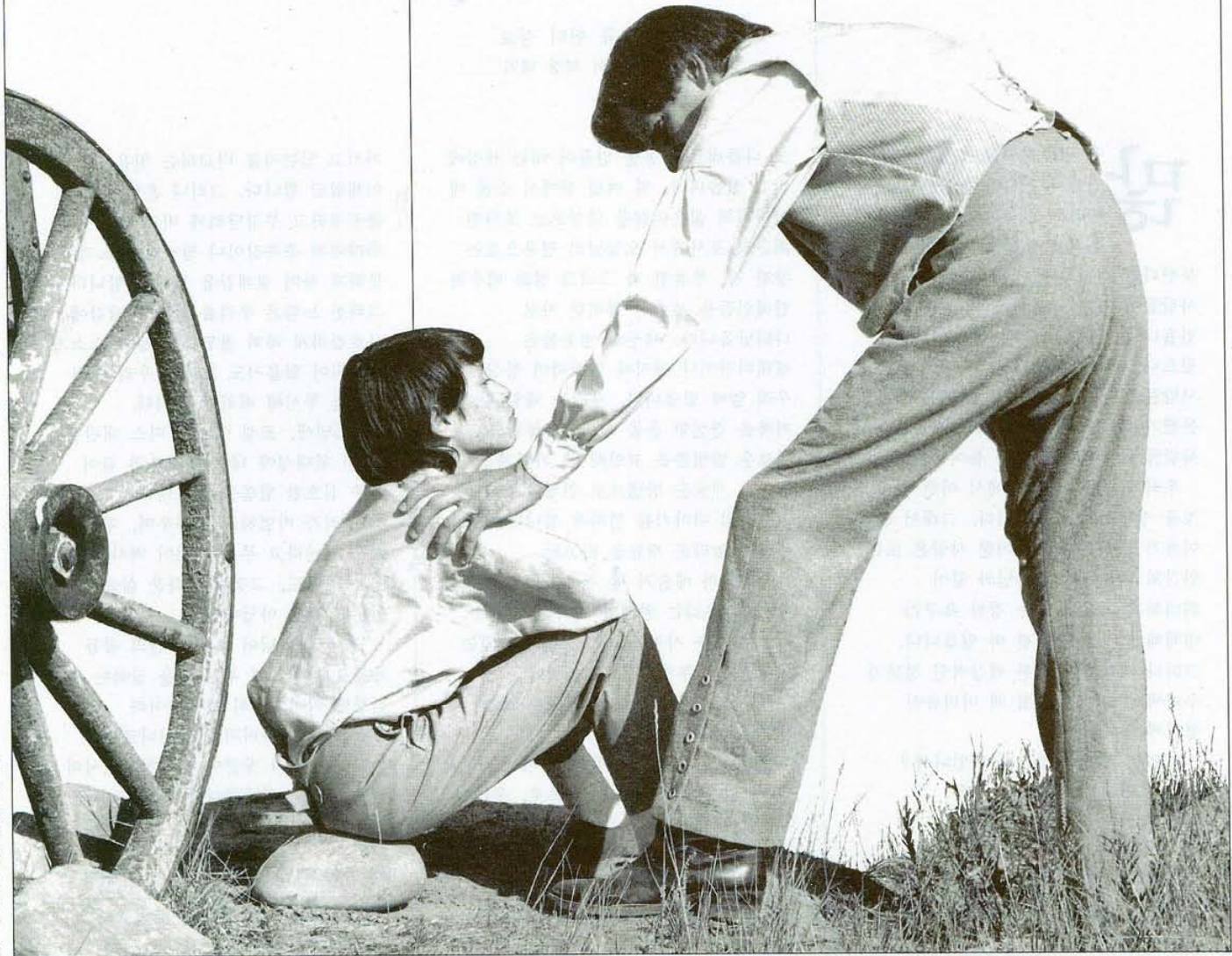
**예언자 요셉은 가장 바쁜 사람이었지만 어린 소년에게 위안의 말씀을 해줄 시간은 갖고 있었다.**

우연히 위대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때로는 그에 방해되는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조그만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수만 가지의 조그만 행위와 주는 것 즉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포함한 봉사 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신앙과 우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데려 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호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스미스—“매일의 그리스도인”**

요셉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장군, 시장, 건축가, 편집장 또는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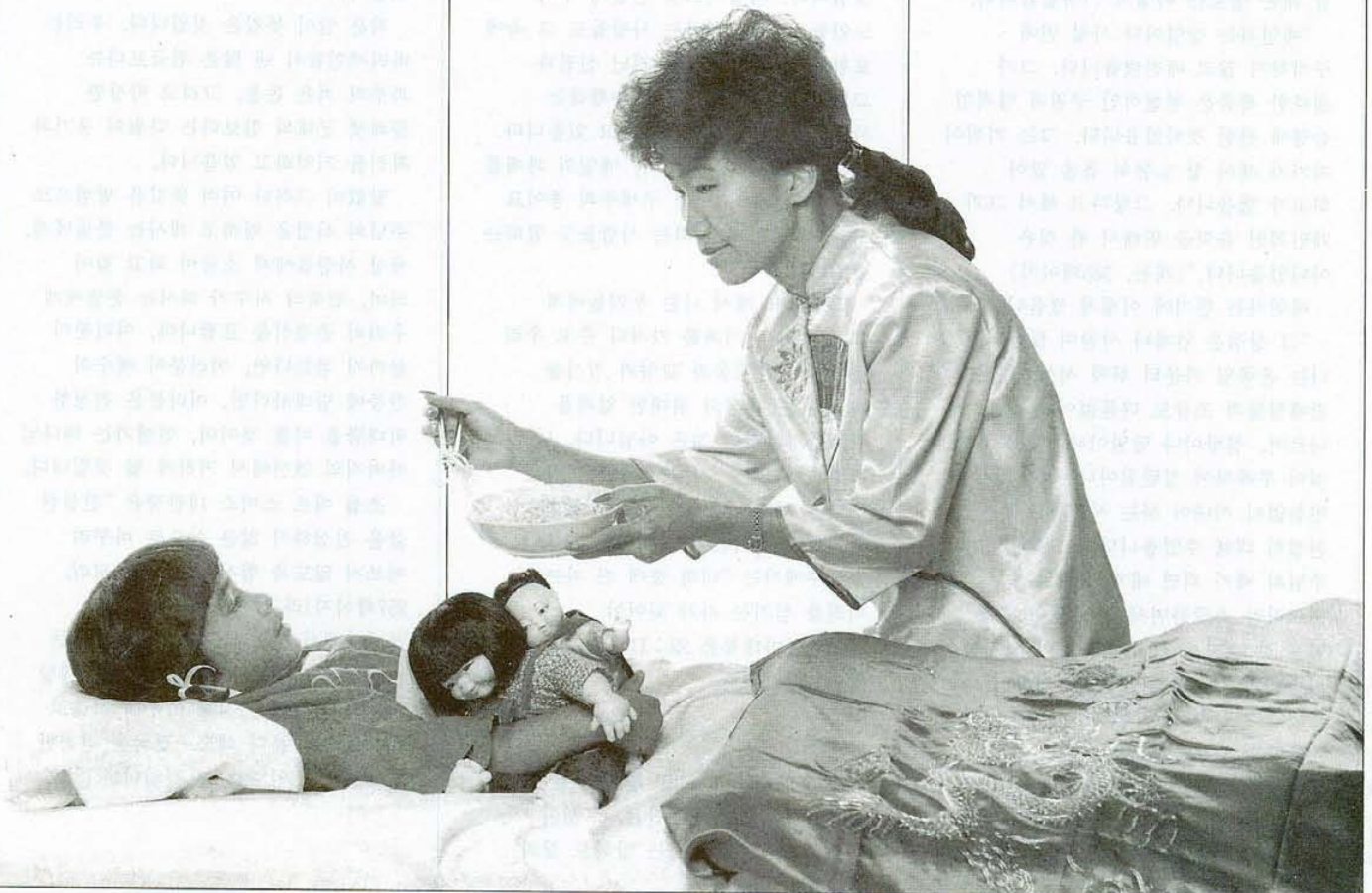
후보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회복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고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매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돌보아 주는 조그만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 세 살 난 소년인, 라이만 오 리틀필드는 미주리로 간 시온 진영을

따라 갔습니다. 그는 후에 예언자의 생활에서 보여 준 작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이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극히 힘든 것이었으며, 신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형제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나는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영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진영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보더니, 산적해 있는 다른 일거리들을 제쳐 놓고 내게 위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내 머리 위에 얹으며 ‘네 자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없다면 하나 만들어야겠다.’

**“나는 병을 앓는 자녀를 돌보며 여러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 중에는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영웅들이 많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으며 그 따스한 손길은 사라지지 않았읍니다. (조지 큐 케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86년 344페이지)

또 한번은 아담스 카운티의 보안관 토마스 킹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예언자를 체포하여 그를 미주리주의 보그스 주지사의 사자에게 보내기 위한 민병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킹 보안관이 심하게 앓게 되자, 예언자는 그를 나부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나흘간 친형제같이 간호해 주었습니다. (케논, 372페이지) 예언자는 자주 작지만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뜻깊은 봉사 행위를 행했습니다.

나부에서의 삼점 개설에 대하여, 조지 큐 케논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언자는 상업이나 사업 면에 주저하지 않고 매진했습니다. 그가 설파한 복음은 현실적인 구원과 영적인 승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가 해야 할 노동의 몫을 맡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논, 385페이지)

예언자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상점은 언제나 사람이 많아서, 나는 온종일 카운터 뒤에 서서, 다른 판매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상품을 나르며, 설탕이나 당밀이나 건포도같은 것이 부족하여 성탄절이나 새해 맞이 만찬없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승영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케논, 386페이지)

훌륭한 장로 정원희 서기와 상호부조회 교사 또는 사랑하는 이웃 사람이나 귀기울여 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위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투쟁에서—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 하며, 다른 사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성있게 견디어 낸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것입니다.

####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우리들 중에는 위대하지만,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영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없이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앓는 자녀를 몇 시간이고 몇 날 밤이고 지켜서 돌보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혈해 주며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과 교회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온유하며, 매일의 과제를 열심히 행하며, 또한 구세주의 종이요 그의 양의 목자가 되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들에게 것처럼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우리 생활에 아름다움과 교양과 질서를 제공해 준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장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인생사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 : 1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위대해질 수 있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때는, 우리가 성취해 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상황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독특한 존재이며, 인생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독특한 여러 가지 재능과 숨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특정한 과제와 이겨내야 할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함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임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단순한 일을 행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 뜻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낸 많은 헌금보다는 과부의 적은 돈을, 그리고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힘보다는 다윗의 용기와 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여러 뜻깊은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힘이 되며, 민족의 지주가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심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참는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간증에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위대함을 이룰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진실한 삶을 진실하지 않은 삶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도록 합시다.” (복음 교리, 257페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임해 주신 일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로서—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아무리 하찮고 무의미하게 본다 해도—결국은 진정한 위대함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



언기에 앞서, 니파이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니파이일서 4:1~3 참조)

니파이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던 만큼 대탈출의 문학적 형식에도 익숙해 있었다. 대탈출의 주기는 성경과 기타 유대의 기록에서 흔히 사용되는 노예와 신성한 구원의 형태이다.

대탈출의 주기는 사건이 어떻게 구원의 형태와 어울리는가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건의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니파이의 기록은 모세가 그의 기록에서 사용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주제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다음 도표에 열거되어 있다. (그 목록은 다만 몇 가지 보기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행 대구법의 순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그럴 생각도 없는 것이다.) 유사한 예는 많이 들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주님은 하나님이지요, 그가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

대탈출의 주기의 마지막 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끝나는 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여러 차례의 대탈출의 주기를 경험한 후, 그 시대는 바빌론-사악한 세계로부터의 예언된 마지막 대탈출이 될 것이다.

말일의 대탈출의 마지막 간증은 애굽으로부터의 대탈출의 간증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대탈출의 간증과 같다. “육신으로 난 모든 것들이 나 주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니파이일서 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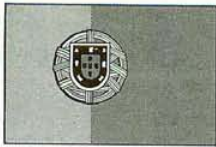
이사야서 49:26)

니파이가 대탈출의 주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자유롭게 히브리의 문학적 형식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된다. 니파이일서에서의 그의 문체는 히브리의

기초, 히브리의 예언 형식, 히브리식 표현, 히브리 문학적 형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참으로 “유대인의 학문으로”(니파이일서 1:2) 되어 있는 기록이다. □

니파이일서와 출애굽기의 비교

니파이일서	출애굽기	두 기록에서 공통된 주제
1:6; 16:16	13:21	주님의 인도
1:20	1:11-16	역압적인 상태
2:2	3:7-18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
2:6-7	3:18; 15:22; 20:25	사흘간 여행한 후에 주님께 재물을 바침
2:11-12; 5:2; 16:20	15:24; 16:2-3	주님에 대하여 불평함
2:15; 3:9; 10:16	18:7; 33:8	천막안에서 거주함
2:20	3:17	새로운 상속의 땅에 대한 약속
4:12	17:8-13	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둠
7:6-7	14:12	반항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함
9:1-4	17:14	여행의 기록
11:1-14:27	19:19-31:18	높은 산에서 하늘의 존재로부터 가르침
15:6-16:5	19:3-25	거룩한 가르침을 받은 후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언자
16:10	7:9-21; 8:16; 14:16	기적적인 식물(막대기와 리아호나)
17:3-5	16:11-18	주께서 음식을 마련하심
17:4	16:35; 신 8:2	황야에서의 방향이 연장됨
17:6	16:3; 17:1	황야에서의 역경
17:26; 18:8-23	14:21-22, 29; 15; 19	대양을 횡단함
17:55	14:31; 20:12	주님의 능력을 인정함
18:7	18:3-4	두 아들이 광야에서 태어남
18:8	14:21	주께서 보내신 바람
18:9	32:18-19	사악한 농탕치기
18:20	32:10	주께서 멸망을 위협하심
18:23-25	수 11:23	약속된 땅의 상속
19:11	20:18	천둥과 번개



페르디난드 머켈린과  
바쉬쿠 다 거머 지방에서  
수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 폴투갈의 성도들

돈 엘 서얼

**폴** 투갈의 젊은 건축가인 알시노 실바는 1976년 십이월의 어느 날 오후에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폴투갈 북부의 주요 도시인 포르토에 막 도착한 일단의 미국인 선교사들에 관한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그날 저녁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가족을 그들이 그렇게 빨리 찾게 된 것에 놀라고 말았다.

처음부터 그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구도자였다. 그들은 십일조의 법을 포함하여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다. 카톨릭 교회에서 자라난 마리아는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들이 가르친 모든 것이 그녀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들어 맞다고 느꼈다. “그들이 가족은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나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던 차에 침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알시노는 거절했다. 그들은 그런 결심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그러한 그의 결정에 대하여 내심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이미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도해 보았으며,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알시노 자신도 마음 속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월요일 밤에 선교사들이 그들의 아파트를 떠날 때, 그는 상반되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을 다시 부르자...아니야...그래, 그들을 다시 불러야 해...아니야.”

선교사들은 금요일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중에 다시 실바 부부를 방문해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좋습니다.” 하고 알시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 오셨으니, 우리 침례 날짜를 정하도록 합시다.”

1977년 이월에 침례받은 실바 부부는 포르토에 있는 소수의 말일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알시노와 마리아는 교회가 그들 지역에서 성장해 감에 따라 여러 가지 지도자의 직분을 맡아 왔다. 그는 현재 그의 나라에서 두번째 스테이크인 포르토 폴투갈 스테이크 부장이다.

## 헌납 기도

아마도 실바 부부는 1975년 4월 22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선교 사업을 위해 폴투갈을 헌납하면서 마음 속에 그렸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리스본의 외곽 언덕에 있는 바랍부는 지역에서 몇몇 선교사들과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축복 기도를 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의미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척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를 길을 보여 주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 회원들이 증가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날 유럽에서 가장 서쪽 지점인 카보 다 로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질푸른 대서양의 물결이 깊고 검은 해안선 경계를 넘실대며, 흰 거품이 섬세한 폴투갈 레이스 모양을 이루며 일고 있었다. 그의 헌납 기도에서, 몬슨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옛날부터 이 땅에서 항해사와 바다 사람들이 나갔으며, 폴투갈 백성들이 모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지의 땅을 바라보았듯이, 당신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을 믿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진리를 이제 찾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관장단 제 이 보좌인 몬슨 부대관장의 기도는 폴투갈에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크게 성취되고 있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폴투갈 정부의 승인 허가가 있는 후인 1974년 말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1975년 칠 월에 폴투갈의

말일성도들은 단지 백 명이었다. 1978년 경에, 폴투갈에 교회 회원들이 천 명이 넘었다. 1984년 중순까지는 오천 명 가량 되었으며, 그 이후로 회원들이 배가되었다. 1987년 말까지는 폴투갈에 말일성도 수가 만 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폴투갈 리스본 선교부는 작년에 분리되었으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폴투갈 포르토 선교부는 칠 월에 시작되었다.

### 준비된 사람들

복음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시기적으로 완전했다고 리스본 폴투갈 스테이크 비토 마틴스 부장은 말한다. 분명히 주님에게서 준비된 많은 폴투갈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마틴스 부장도 초기 개종자의 한 사람이었다.

폴투갈 백성들은 매우 겸손하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백성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매우 열성”적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마틴스 부장은 그의 스테이크 내에 안토니오와 매 레메 부부와 같은 많은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레메 부부 역시 폴투갈에 있는 말일성도 개척자에 속한다. 브라질 태생인 그들은 조종사인 안토니오가 폴투갈 국립 항공사에 취업이 된 1965년에 유럽으로 이주했다. 매 레메는 아들이 독수리 소년단에 들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노력하던 차에, 소년단 그룹을 도와 주고 있던 제랄딘 뱅거터 자매를 만났다. 매는 곧 뱅거터 자매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선교부장으로 있던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 (뱅거터 장로는 선교부장 재임시인 1975년 4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매는 교회에 관해서 좀더 많이 배우는 데 예절바른 관심을 보였으며, 뱅거터 자매는 곧 선교사들을 보내 주었다. 레메 부부는 일곱 달 동안 치밀하게 공부했다. 폴투갈에 있는 교회는 레메 부부가 가입했을 때만 해도 아직 리스본 호텔에서 소수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안토니오 레메는 금년 초에 리스본 교외에 세워진 오에이라스 와드의 감독이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방법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겨 말한다. 항공 관계에서 은퇴할 연령이 된 후에도, 그는 교회 부름에 너무 바쁘게 지내게 되어 자신이 전혀 은퇴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봉사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교회에 나의 시간을 바치는 데 한번도 지쳐 본 적이 없습니다.”

### 새로운 예배당

레메 감독이 말하는 폴투갈에서 회원들이 당하는 어려운 점의 하나는 모임에 오고가는 교통편이라고 한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일 뿐이며, 대중 교통편도 값이 비싸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것이며, 많은 회원들에게는 걸어서 모임에 가기에 예배당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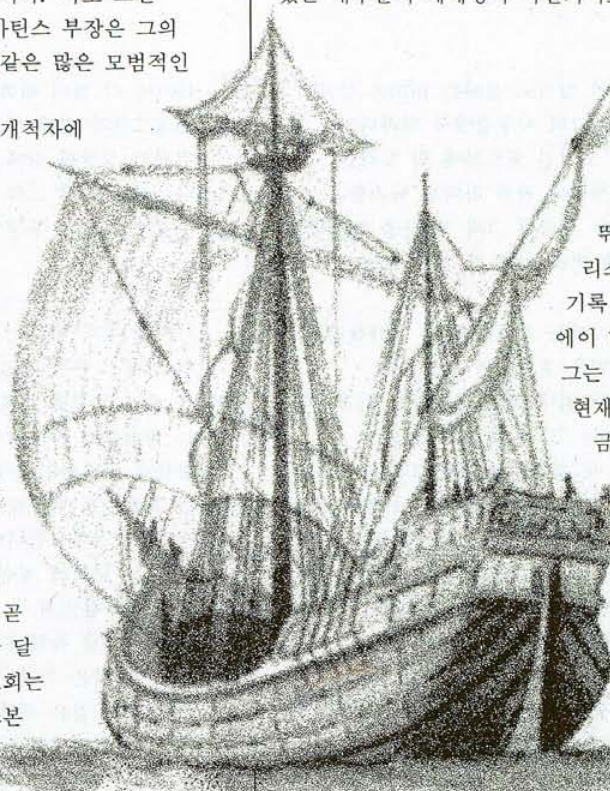
리스본 제 사 와드의 마누엘 조아오 코레이아 텔레스 감독은 그의 손가락으로 와드 지도의 중앙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곳에 예배당을 가질 수 있다면, 참석 수가 배가될 것입니다.” 1987년 초에, 약 백만 인구의 도시 리스본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예배당에서 네 개의 와드가 모임을 가졌다. 전국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예배당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배당 역시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이며 집회소로 개축된 것이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때로는 전세 건물을 얻기 위해 이리 저리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하고 리스본에 있는 교회의 재정 및 기록 담당 지역 책임자인 호세 에이 테이셰이라 형제가 말한다. 그는 여러 개의 말일성도 예배당이 현재 폴투갈에 건축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 많은 건축이 시작되도록 계획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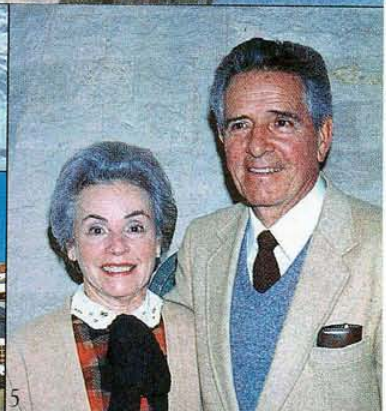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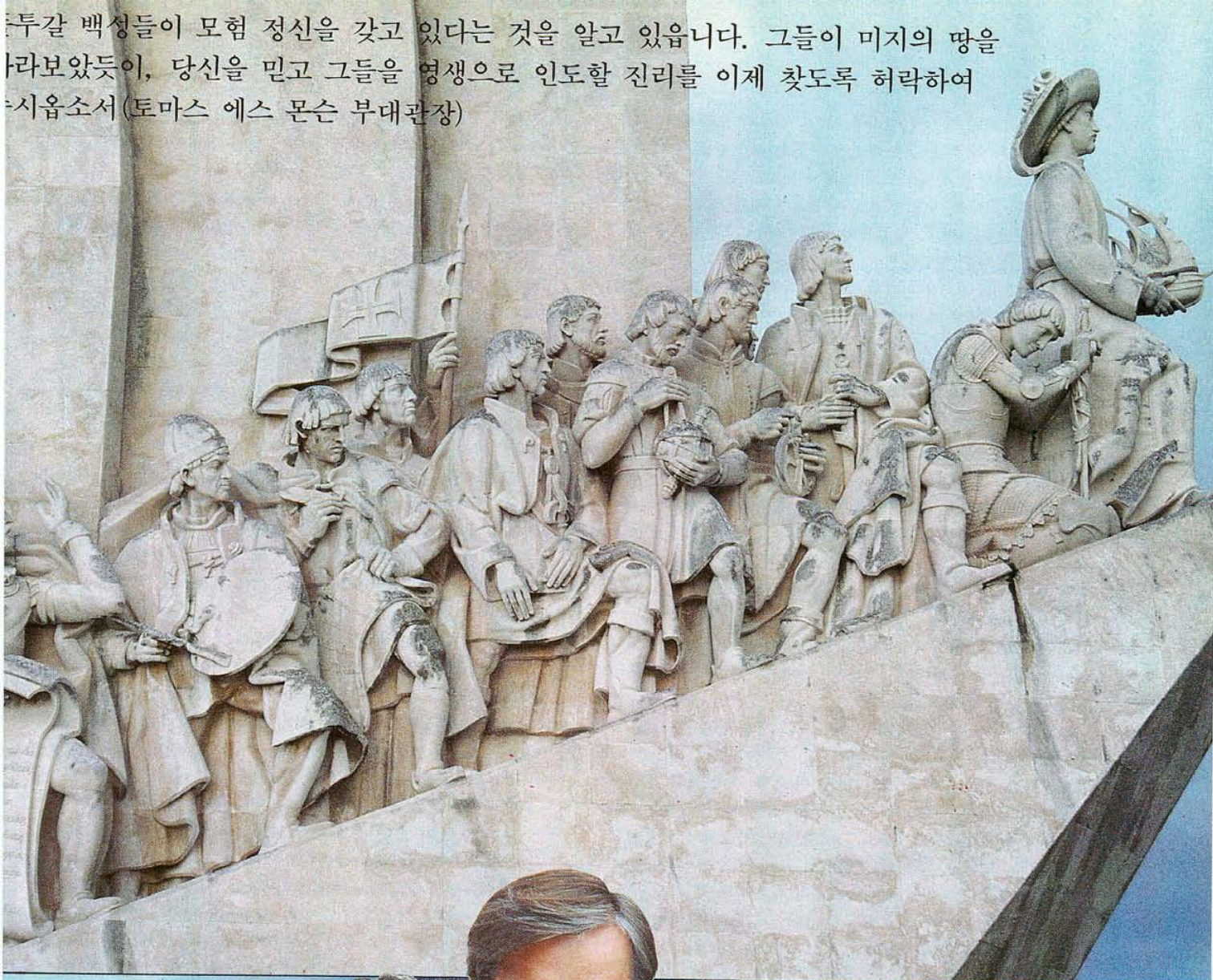
1980~82년 사이에 폴투갈에서 선교 사업을 한 테이셰이라 형제는 폴투갈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예배당은 구도자들에게 확실한 안정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영원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 리스본 테이저스 강가에 있는 발견 기념비가 아프리카와 신세계로의 항로를 개척한 폴투갈 탐험가들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폴투갈인들에게 해상 탐험을 권장했던 탐험가인 헨리 왕자(1394~1460)가 있다.
2. 카보 다 로차의 동대 아래 정교한 폴투갈 레이스와 같이 흰 거품이 일고 있는 대서양.
3. 포르토 스테이크의 알시노 페레이라 다 실바 스테이크 부장과 그의 아내인 마리아 나자르 올리베이라 마틴스 실바는 폴투갈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속한다.
4. 폴투갈에서 교회의 성장을 상징하는 포트마오에 있는 이 예배당은 폴투갈에서 첫번째로 건축되었다. 지금은 많은 곳에 예배당이 있다.
5. 오에이라스 와드의 안토니오 레메 감독과 그의 아내인 매 자매. 브라질에서 건너 온 감독 부부는 폴투갈 교회의 초창기 회원에 속한다.

폴투갈 백성들이 모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지의 땅을  
탐험해보았듯이, 당신을 믿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진리를 이제 찾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폴투갈

그러나 건물은 알가베 지방부, 파로 지부의 브리지다 이누세잉슈와 같은 훌륭한 회원들의 힘보다 성장에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들이 말일성도 친구와 친해짐으로써 개종하게 된, 이누세잉슈 자매는 자주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예를 들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에서 브리지다는 그와 같이 드문 이름을 가진 다른 여인들과 접하게 되었다. 이누세잉슈 자매는 그녀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으며, 그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 “그녀는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이누세잉슈 자매는 웃으며 말한다.

브리지다 이누세잉슈 자매는 알가베 지방부에서 사랑과 화합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회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 나라의 남단의 정치구인, 알가베 지역은 “햇빛 비치는 풀투갈”의 관광 여행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익어 가는 밀갈 열매는 가족 및 휴양 별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월의 어두운 침침한 나무 숲에 현란한 색깔을 더해 준다. 파로, 포티마오, 알부페이라 및 라고스 해안과 부두는 여름이면 수많은 나라에서 몰려 오는 관광객들로 넘실댄다.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언덕 위에 하얗게 씻긴 등성을 따라, 양떼들이 코르크 나무 사이를 스치며 지나간다.

포티마오는 풀투갈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이 건축된 지역이다. 그 도시에도 역시 필러미너 시마옹 가족과 같은 개척자 회원들이 있다. 시마옹 자매는 십대 시절에 그녀의 가족이 복음을 들었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 “나는 영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시대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현대 계시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반대하기도 했으나, 그녀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는지 않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써 많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계속해 나갔다. 후에,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으로 그녀는 지금도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

유럽에서 말일성도 청소년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오에이라스의 열 여덟 살 난 칼러 드와리 피게이레이두는 말한다. 칼러는 로우디저(현재의 짐바브웨)에서 출생했으나, 그녀의 생애의 삼분의 일은 풀투갈에서 보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직장 관계로 그들을 스페인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육 년간을 보내기도 했다.(그녀의 부모는 이혼했다.) 붉은 머리의 웃기를 잘하는 칼러는 영어와 스페인어와 풀투갈어를 말한다.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해져야 해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젊은이들은 풀투갈에서 보통 십대들이 받는 알콜과 마약과 부도덕의 유혹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과 그들의 영적인 표준에 대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나는 지혜의 말씀이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칼러는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나 친지들이 그 이유를 물어 그녀가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듣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포르토의 열 다섯 살 된 칼로스 테이셰이러는 활동이 말일성도 청소년의 핵심 그룹을 끌어 들이고 비 말일성도 회원들도 다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고 말한다. 운동 활동과 더불어 무용과 연극이 인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비오는 토요일에 열린 탁구 토너먼트에는 수는 작지만 열성적인 참가자와 관중들을 스테이크 센터로 끌어 들었다.(크게 개조된 그 건물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침례식이 있고, 윗층에 있는 방에서는 와드 상호부조회 계획 모임이 열린다.) 포르토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칼로스는 말한다.

풀투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수의 40 퍼센트는 풀투갈인이나 브라질인이며, 풀투갈 전역의 젊은이들은 선교 사업의 부름에 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희생도 따른다. 의무 군 복무로 선교 사업이 단축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종교 분야에 종사함으로 인해 학업이 방해받는 것에 매정하게 대하므로, 재입학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호세 테이셰이러(칼로스와 인척 관계가 없음)는 말한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기초를 세운 것이 바로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도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그는 리스본 풀투갈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 일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전국에서 교회는 귀환한 젊은 선교사들의 힘에 의해 뒷받침받고 있다.

회원 수가 약 1,800명 되는 세투발 스테이크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든 이십 여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다. 세투발은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사십 오 분 가량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이다. 스테이크에 있는 와드들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곳에서 선교 사업은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도와 줍니다.” 하고 옥타비오 다 실바 메일로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1986년에는 그 스테이크에서 380명이 침례받았는데—그것은 풀투갈 총 침례 수의 약 20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회는 풀투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하며, 그중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메일로 스테이크 부장은 덧붙인다.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세 시간 가량 걸리는 곳에 있는 코임브라에서도 똑같은 선교 사업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도시의 역사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가며 확장 일로에 있는 코임브라는 언덕 위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 구도로가 도시의 중심부를 휘감고 돌며, 어떤 길은 좁았다가, 어떤 길은 넓어져 광장으로 이어진다. 건물이 몬데고 강으로부터 계단 모양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풀투갈인들은 공부하러 코임브라로



간다고 말하며, 한 대학은 1920년에 연대가 시작된다. 도시는 전통적인 종교적 분위기에 젖어 있으나, 네 개의 말일성도 지부가 있고 450명의 교회 회원들이있다.

“나는 언제나 선교사들을 돕기를 즐겨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어린 마케이스는 말한다. 그녀는 시장에서 옷가지를 파는 자그마하나 활발한 집시 여인이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은반지 중에는 초등협회의 정의반 반지도 끼어 있는 데, 그것은 그녀가 도와 준 선교사들이 준 선물이었다. 가족의 반대로 여러 해 동안 교회에 가입하지 못한,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하여 복음을 알게 했다. 그녀는 삼 년 전에 오래 전 친구인 코임브라 지방부의 호아킴 호세 다 실바 아이리스 지방부장에게서 침례를 받고 난 이래 그러한 선교 사업의 열의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아이리스 부장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 주는 우호적이고 활달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자 집안 출신의 무신론자로서,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회의적이었다. 선교사들이 먼저 그의 아내 도미틸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남편은 그들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에 관한 토론은 하지 않은 채 세 번이나 방문하면서 그와 친해지게 되자 그제서야 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미 예견된 대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으나, 자기 아내에게는 가르쳐 줄 것을 그들에게 허락했다. 그러나 세번째 공과를 하는 동안 복음 메시지가 그에게도 이르기 시작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1977년 칠 월에 침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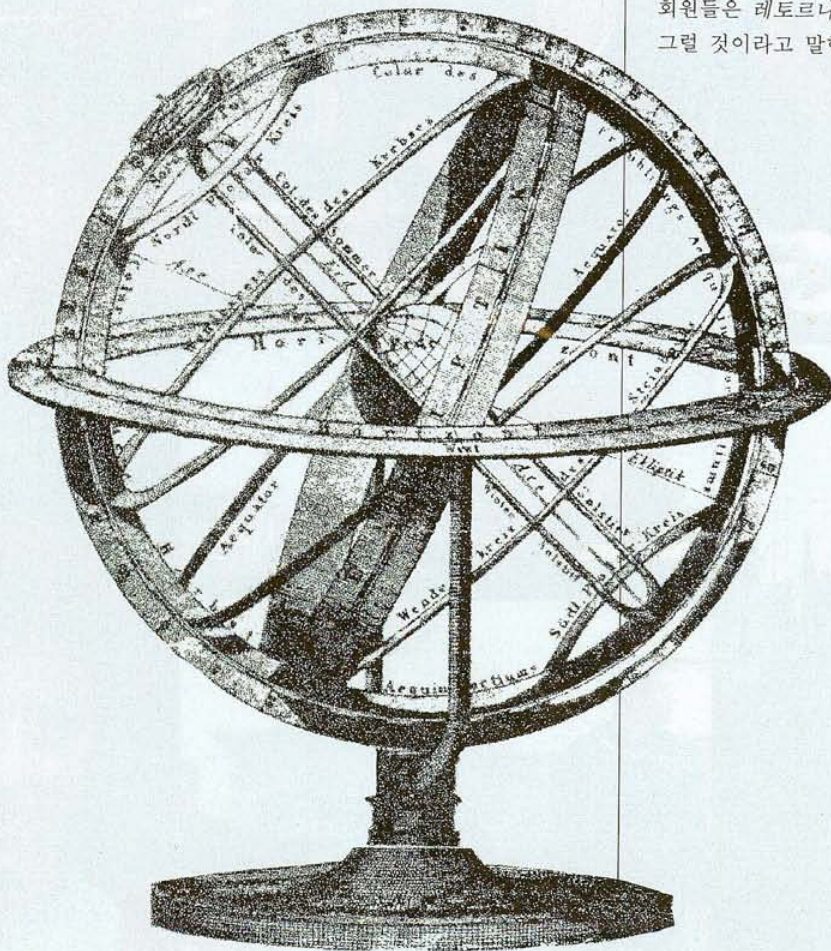
#### 첫번째 폴투갈인 선교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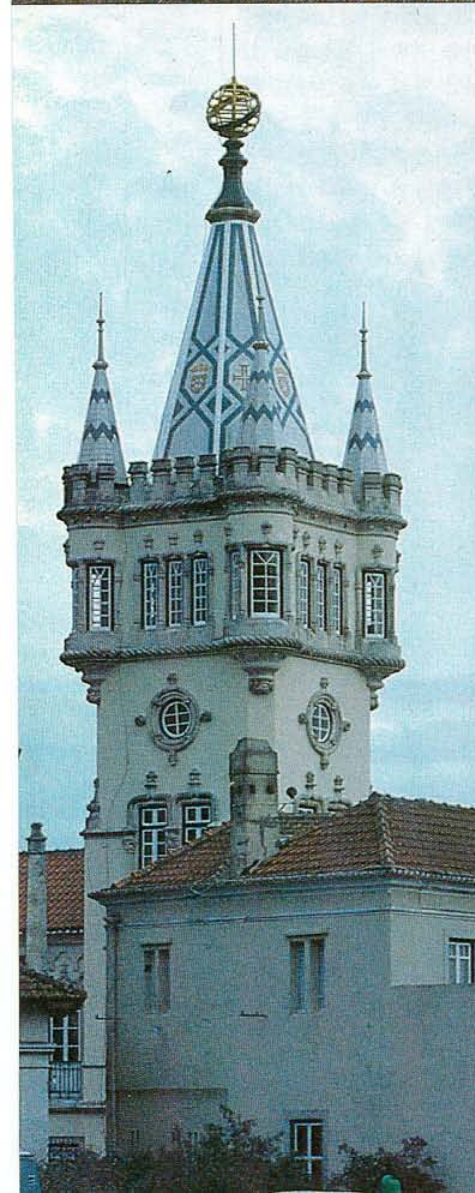
아이리스 부부는 1984년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첫번째 폴투갈인 선교사 부부였다. 언어를 능통하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젊은 선교사들보다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폴투갈인 사회와 문화를 알고 있고, 특히 기혼 부부를 대하는 데서 유익한 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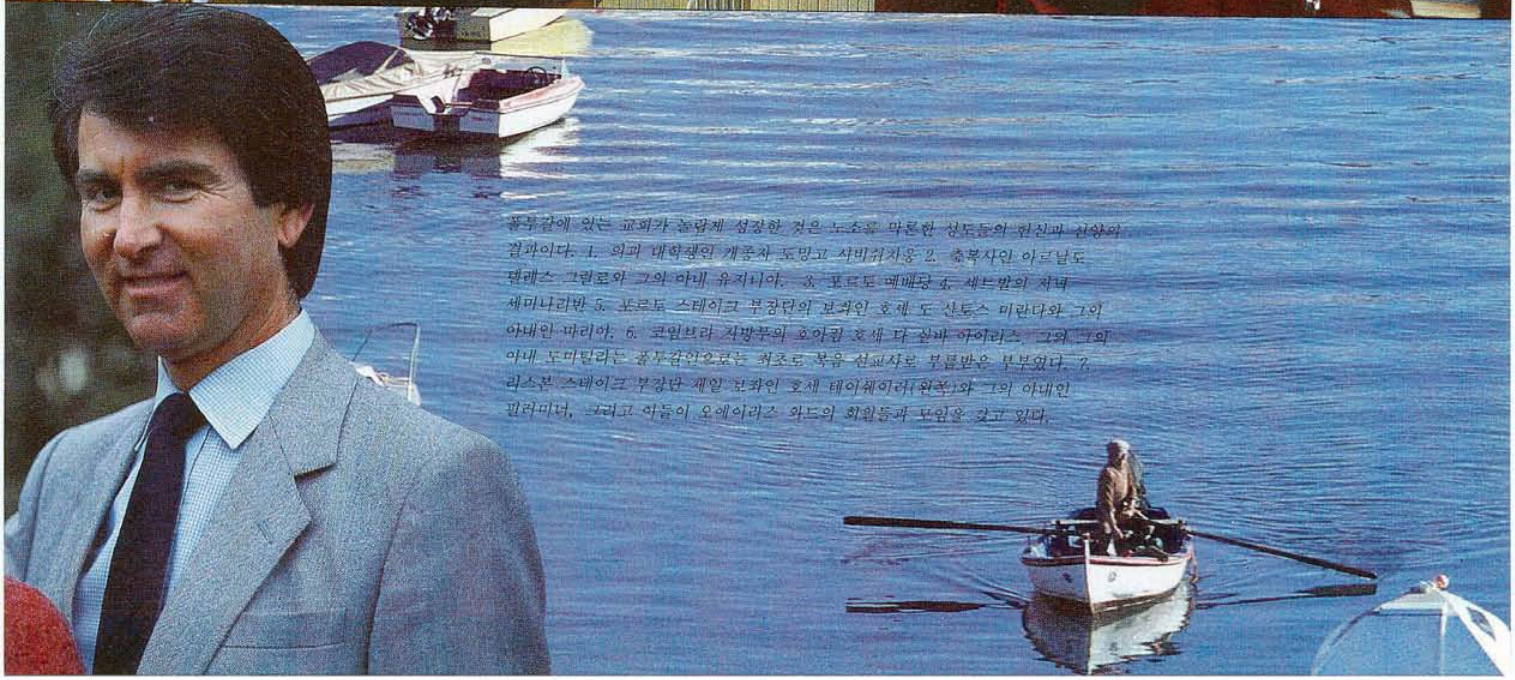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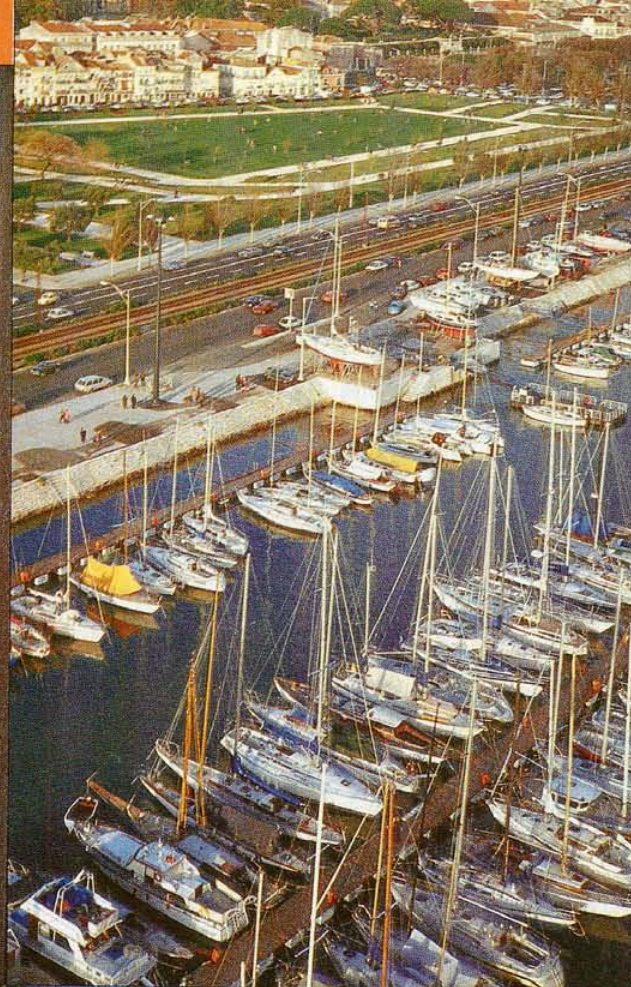
아이리스 부부는 코임브라에 솟아 있는 많은 현대 건물의 하나인 편리한 일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사는 폴투갈인은 그러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단독 주택에 소유 또는 전세 내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건물 뒤에는 그들의 차고로 쓸 수 있는 공간과 그가 기르는 열대성 조류의 집들이 들어서 있다.

아이리스 형제 자매는 폴투갈의 이전 아프리카 식민지의 하나인 모잠비크에서 이십 오 년간 살았다. 파로에 사는 카브랄스와 포티마오에 있는 시마옹 가족과 세부발에 있는 메일로 부장과 같이, 그들은 수십만 명의 레토르나도 폴투갈인, 또는 폴투갈인 후예로, 그들은 1970년대 중반에 식민지가 독립되었을 때 폴투갈을 향해 아프리카를 떠난 사람들이었다.

과거에 식민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다. 교회 회원들은 레토르나도인들이 새로운 생각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생활 양식의 변화와 그들이







물루갈에 있는 교회와 놀랍게 성장한 것은 노소를 막론한 성도들의 헌신과 신앙의 열매이다. 1. 의과 대학생인 게을치 도밍고 사비걸치용 2. 출판사인 아르날도 벨라스 그린로와 그의 아내 유지니아, 3. 포르토 메베당 동 세브발의 차녀 세미니리반 4. 포르토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인 호세 도 산투스 미란다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 5. 코임브라 지방부의 요아킴 호세 다 실바 아이리스, 그의 그의 아내 도미틸라는 물루갈인으로는 최초로 복음 전파사로 부름받은 부부였다, 6. 리스본 스테이크 부장단 제일 보좌인 호세 테이웨이리(원혼)와 그의 아내인 필라미너, 그리고 아들이 오에이라즈 와드의 회원들과 무임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대부분의 물질적인 재산을 잃었으므로 겸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리스본 폴투갈 스테이크의 아르날도 텔레스 그릴로 축복사는 회상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앙골라에서 은행업에 종사하던, 그는 네 채의 집과 여러 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 그와 그의 아내 유지니아는 리스본 교외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들은 아프리카 기념물로 몇 점의 예술품을 가지고 있으며, 한 모퉁이에는 그들이 한때 소유하고 있던 훌륭한 도서 장비의 일부를 갖고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므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고 텔레스 그릴로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로 인해 그들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영원한 축복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무엇이 희생입니까?

텔레스 그릴로스는 1977년에 침례를 받았으며, 후에 스위스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는 폴투갈에 성전이 세워질 날을 기대하고 있다. 여행에 드는 많은 경비와 어려움이 따름으로 인해 일부 합당한 폴투갈인들이 성스런 의식을 받기 위해 스위스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약 2,500킬로 미터 떨어져 있어, 버스로 꼬박 이틀 밤 낮이 걸린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성전을 볼 수 있지요.” 텔레스 그릴로스 형제가 회상하며 하는 말이다. “무엇이 희생입니까? 여행도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50명 이상의 폴투갈인들이 지난 해에 성전 여행을 갔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부정할 수 없는 목표가 되고 있다. 포르토 제일 와드의 아드리아노와 아나 마리아 바로스는 1985년에 그곳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약혼 기간 중에, “성전 결혼” 통장을 마련하여 여행 경비를 매일 저금했다. 그녀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직장을 잃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성전 여행도 못하고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일반 결혼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결혼을 연기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행사하여 성전에 갔으며, 생활이 경제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축복받았다.

젊은 회원들은 성인들이 성전에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 포르토 스테이크의 젊은 남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여행하기 위한 돈을 적립해 놓았다. 바로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 결혼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 곳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사소한 면에서라도 실감되고 있다. 리스본 스테이크의 오에이라스 와드의 레메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폴투갈에서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폴투갈 회원들은 문슨 부대관장이 십 이 년 전에 드린 헌납 기도에서 간구드린 성장을 최근에 확인하고 감사해 하고 있다. 1986년 11월 2일에 포르토 폴투갈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중에, 십이사도 평의회 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폴투갈에는 많은 선교부가 있을 것이며 언젠가는 스테이크로 덮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폴투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는 적대자의 기도로 필경 반대에 봉착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우리 지도자들이 예언한 대로, 교회는 전국에 퍼질 것입니다.” 텔레스 그릴로 형제와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폴투갈인 말일성도들은 그 운명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다.□

# 루비안

## 세 쿠 이



젠 언더우드 핀보로우

**세** 계 각처에서 여성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어두운 밤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아기를 달래 주는 일이나, 하루의 필요량에 맞추어 쌀을 한 움큼씩 재는 일이며, 친구의 슬픔을 달래 줄 말을 찾는 것과 같이 영과 육신을 감싸 주는 겸허한 일이다.

그처럼 봉사하는 많은 여성들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 : 35)고 가르치신 구세주의 메시지에 특별히 순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여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며, 축복해 주는 그들의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팔 년 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러한 여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이들은 내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량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이런 참된 여걸들은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고결함에 더 가치를 두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1, 152페이지)

이처럼 겸손하고, 영적이며, 고결한 성품을 지닌 훌륭한 여인들은 누구이며, 교회에 대량으로 들어와 교회를 강화시킬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그들은 온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인들이다. 다음 몇 달에 걸쳐, 성도의 빛에서는 이러한 여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루비안 세쿠이 : 도미니카 공화국에 빛을 전파함

루비안 세쿠이의 집 뜰에서 읽고 쓰기를 익히고 있는 스물 다섯 명의 어린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다. 너무 가난해서 신발이나 유니폼이나 공립 학교에 갈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집에 잠자리가 없어 바닥에 종이 상자 속에서 잠을 잔다.



펠릭스와 루비안 세쿠이는 1972년에 결혼했으며 1980년에 교회에 가입했다.



세쿠이 자매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잃지 않는 자그마한 사랑스런 여인이다. 칠판에 그녀는 *Dios Me Ama*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썼다.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와 수학, 사회 연구, 과학 및 예절을 가르치는 외에도, 세쿠이 자매는 매일의 공과를 기도와 성경 공부로 시작한다. 그녀는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기도하기를 가르친다. 세쿠이 자매는 학용품을 살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연필이나 노트, 분필 같은 것도 대어 준다. 그녀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세쿠이 자매는 산토 도밍고 거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찾았다. “나는 더럽고, 맨발로 아무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리 온. 무서워 하지 말아라. 너 어디 살지?’ 하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의 집에서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는 허락을 받는다.

한 달에 한번씩 그녀는 부모들을 저녁 모임에 초대하여 아이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를 직접 볼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부모들에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해준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부모들을 가르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세쿠이 자매의 주요 목적은 그들을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학생의 가족은 그녀의 학교에 온 이래 침례를 받았다.

세쿠이 자매는 초등 교육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십 이년간 국민학교에서 가르쳐 왔다. 또한 간호원과 사회 사업가로도 일했다.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천주 교인이었을 때, 때때로 당나귀를 타고 교회로 나가 옷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간호원으로 그녀가 경험한 것 역시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병원에는 항상 사랑과 고통이 가득 차 있으므로 병원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하곤 했지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되면, 병자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성가셔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보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1961년에 루비안 세쿠이는 젊은 여인들이 좀더 훌륭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직업 학교를 세웠다. 그녀는 지금도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학교에서 삼백 명도 넘는 학생들이 재봉, 재단, 제빵, 직조 및 기타 수공예 기술을 익히고 있다. 학교는 소액의 수강료로 운영되며, 그것도 학생의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세쿠이 자매와 그녀의 남편인 펠릭스 형제는 1972년에 결혼하여 1980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자매 선교사들이 개최한 복지 바자회에서 교회를 알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 맨 먼저 매력에 느끼게 된 것은 교회에서 가족을 돕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점과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교회의 철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 후로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의 남편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이다. 세쿠이 부부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열 다섯 살의 아들과 열 두 살의 딸, 그리고 또 한 딸은 세상을 떠났다. 세쿠이 자매의 열 두 살 난 딸은 흔히 그녀와 함께 지내며, 그녀의 일을 도와 준다.

현재, 루비안 세쿠이는 의복 판매점을 설치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교회 자매들이 일주일에 하루 오후에 모여 지역 단체에서 기증한 천으로 재봉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만들어 낸 옷은 교회 안팎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또한 심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다.

세쿠이 자매는 지상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먼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집을 짓는 일에 비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목표는 이 지방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이 생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므로 하늘 나라에 우리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항상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그녀의 모든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희망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섯 살 난 제프리 몬테로와 그 또래의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읽기를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부인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사실상, 그녀가 없다면, 그들은 그들이 더 훌륭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쿠이 자매는 자신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고 그녀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린다. □

나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았다.  
“이기심이 결혼 생활의 문제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나는 나의 필요  
사항을 나의 배우자의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합니까? 나는 항상 나의  
동반자의 필요 사항을 먼저 앞세워야

할까요?”

사실, 부부 사이에는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과 배우자의 필요  
사항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선택 폭이 있게  
된다. “상대방을 생각할 것 없이 나의

# 나와

## 결혼 생활에서

스티브 에프 길러랜



# 당신

필요 사항만 돌보면 되는 것”은 저울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고, “내 것은 생각할 것 없이 상대방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것” 역시 다른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결혼 상담자인 나는 저울에서 양쪽으로 치우친다는 데에서 심각한

영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항상 옳다고 하며,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누가

## 누가 먼저인가?



좋아할 것인가? 그러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은 하되 듣지는 않고, 상대가 좋아 하든 안하든 “섬겨 주기”만을 고집하며 충고는 많이 늘어 놓되 기꺼이 필요한 도움은 주려 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치우친 사람은 헌신적으로 되는 데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다가 스스로 지쳐 버리게 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제쳐 놓고 가족이나 교회 부름, 이웃 및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힘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랑 한 상자를 특별히 맛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아내는 그것을 그녀가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것을 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주부는 남편이 집안 일을 도와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주부의 직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부도 있을 수 있다.

나의 배우자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위기나 기분이 좋지 않은가를 살펴 보고 귀기울여 보고 “당신 기분이 좋지 않은 (걱정이 되는 또는 화가 난) 것 같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지 않겠소?”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충고나 비판을 하지 말고 들어 주도록 한다. 우리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 자신이

반복해 말해 보면 우리는 배우자의 느낌과 관심사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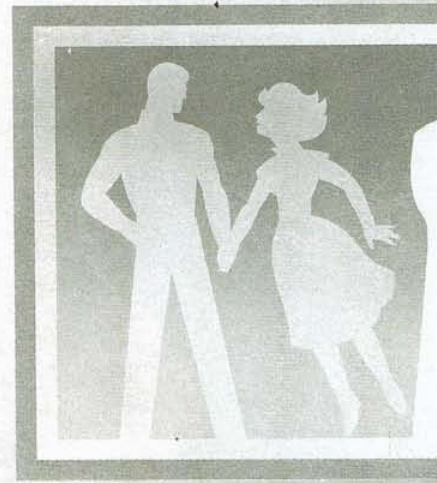
주의해야 할 것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관심을 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말하고 싶어할 때 나는 나 자신의 걱정 거리를 안고 있거나 피곤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아내의 문제로부터 나의 문제로 초점을 바꾸어 놓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야 한다. 나는 또한 아내의 말을 반 정도는 흘려 들으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때로는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놓치게 되는 수도 있다. 비이기적인 봉사를 한다는 것은 편안함과 거리가 먼 것이나 결혼 생활의 유대를 강하게 합쳐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 자신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함

과거에는 아내가 눈물을 흘려 내가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면 나는 “울지 마오. 그렇게 나쁠거야 없지 않소.” 하고 반응을 보이고는 했다. (아내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좌절감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아내에게 아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 뜻은 없다 해도, 아내가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데 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내가 그와 같이하기를 중지하자,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요구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야고보서 1:19)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주기가 가장 힘든 때는 상대에 대하여 화가 나 있을 때이다.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방어를 하게 되고 화가 난 이유를 알려 하기보다는 “반격”을 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비이기심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동반자의 느낌과 필요 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 쉽게 필요한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들어 준다는 데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여러분 쪽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이 좋아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않으며 항상 자신의 길만 가려 하

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나의 아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점이 있을 때는, 당신은 내게

어리석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 나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점을 아내에게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후에 가서야 아내가 나를 비난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음의 고통을 누르고 주의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이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가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히 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교성 121 : 42 참조)

필요하다면, 투명스런 불만이 토로될 때 그러한 불만이 나오게 된 걱정 거리를 살펴 보아야 하며, 흔히 비난



사람의 필요 사항은 결코 고려하지 않고 함께 지내기를 누가 원하겠는가

뒤에 숨어 있는 좌절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관련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문제점으로부터 피신함

가장 파괴적인 이기심의 형태는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피신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피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문 뒤에, 우리의 직장 뒤에, 심지어는 교회의 직책을 내세우고 그 뒤로 피신하기도 한다. 우리는 또 한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문제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 뒤에 피신하기도 한다. 내가 나 자신의 문제점을 잊고 아내에게 아내의 기쁨과 고통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가도록 했을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경험한 것을 알았다. 이 경험으로부터 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진리와 함께 기뻐”(고린도전서 13 : 5~6)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다가 자기 자신이 감정적으로 지쳐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 (2) 그 때에 자신이 지닌 개인적인 한계성, (3) 자신의 필요 사항 등 세 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사흘 동안의 소년단 야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말할 게 있다고 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어느 것에도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가는 잠에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잠을 자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 주지도 못하는 아내의 무감각을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자신의 경험을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하고 내가 너무나 피곤하여 잘 들을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그대로 했다.

때때로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실상은 또다른 짐을 받아들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정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예절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인정하고, 그 당시에 우리의 한계를 규명하고, 친절하게 아니더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모든 작은 요청에 예라고 말할 수 없을 때는 흔히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아무 때나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좋은 일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아니더라고 말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될 어떤 것에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나민 왕은 이렇게 권고했다.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영적으로나 육신으로…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체험에 거역계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야서 4 :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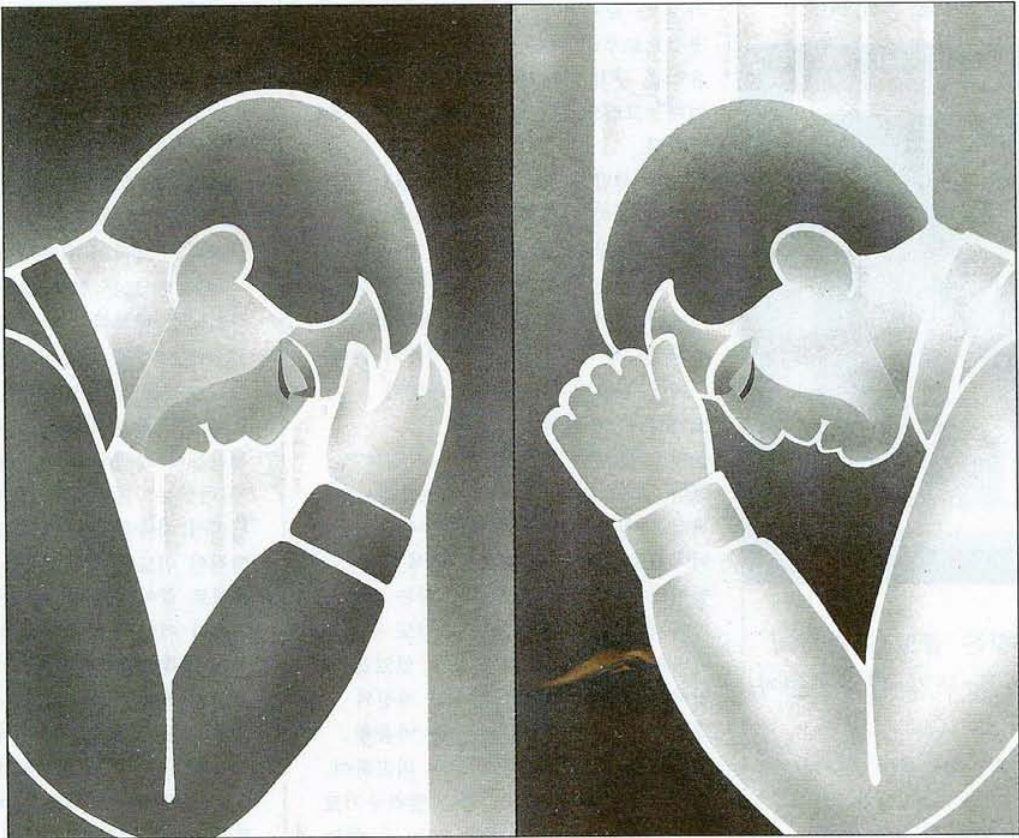
자기 만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또는 새롭고 보다 “의미있는” 관계에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다. 영적인 인도를 받음에도, 파괴적인 관계로 끝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기심이 지배하게 되면 성장과 결혼 생활과 가족 간에 영원한 자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 생에서 가족 관계보다 비이기심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없다. 사랑과 이해심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인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다. □



결혼 상담자인 스티브 에프 길러랜드는 캘리포니아 롱 비치 와드에서 소년단 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롱 비치 주립 대학 근처 신학 연구원의 책임자로 있다.

# 미묘한 균형

글렌 엘 페이스 관리 감독단 제이 보좌



**정**

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성에 의지하는 것과 영의 속삭임에 의지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 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성에 의지하느냐 영의 속삭임에 의지하느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무시한 채 지적인

능력에만 의지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사물을 구명해 내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 채 영적인 해결책을 기대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론경을 번역하려 했다가 실패했을 때 주께서 올리버에게 주신 말씀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러한 느낌도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교성 9:7~9)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껏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과 능력을 활용합니다. ...자유의지와 영감 사이에는 훌륭한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자유의지 또는 영감 중에서 어느 것을?”, 1973년, 2월 27일에 브리검 영 대학에서의 연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적절한 균형을 찾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당면할 때 나는 마음 속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뒤 그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나는 기도드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후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주님께 여쭙어 보고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

“우리가 주님의 영을 통하여 받은 영감과 우리 자신의 소망과 의욕을 통하여 떠오르는 영감을 분별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조금도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뉴 이라, 1975년 10월호, 35페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일을 행하여, 결과적으로 영적인 확신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확신을 받았을 때를 잘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봄으로써 지적인 접근 방식과 영적인 접근 방식의 적절한 균형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합니다.

#### 두 가지 극단적인 예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주님을 부를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학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진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적인 의문을 풀고자 노력하는 중에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교회 본부나 지역의 지도자들의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며 필경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쪽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며, 그러므로 영과 함께 한다.” 문제점에 당면할 때마다 그는 늘 답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음 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영감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경우 합당한 근거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해결책은 육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영감이 주어질 때도 있으나, 그것은 드문 일이고 대개는 비상시의 일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이유를 생각해 내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상식에 의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지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권고

그러한 극단적인 두 예를 마음 속에 생각하며, 나는 영적인 것과 지적인 기능 사이의 합당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약 칠 년 전에 나는 교회 복지 사업과의 새로운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복지 역사에서 중대한 단계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상황에 비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고통스런 재평가를 거쳐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나는 크게 걱정되고 염려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위해 기도한 후 나는 기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몇몇 총관리 직원들을 만나 불 작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난 나는 나의 관심사를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는 나의 느낌을 덧붙였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그들의 영감받은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내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다 내게 같은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페이스 형제님, 형제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 가서 계시를 받으십시오!” 나는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해 본 다음 몇 가지 추천 사항을 마련하여 총관리 직원들에게 가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 진리로 향하는 큰 길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식별해 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지성보다도 더 크고 오감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것은 하늘에서 직접 오는 계시입니다.

물론경의 구원의 간증은 극적인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인 발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간증을 위해서 경전 이외의 곳에서 실질적, 역사적인 증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그는 금판을 모로나이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였을 때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한 질문은 “오늘날 금판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도로 가져 갔습니다.” 하고 우리가 대답할 때, 보게 되는 표정이

탐탁치가 않았읍니다. 내가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금판을 들고 무게를 달아 보고 시험해 본다 해도, 그들의 의견은 여전히 다양할 것입니다. 나의 동반자와 내가 모로나이를 데리고 이집 저집 다닐 수 있었다 해도, 우리의 개종자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의 확신이 없고서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모로나이 역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틴 헤리스가 금판을 보기를 원한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만일 저들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맡긴 바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보여 줄지라도 너 나의 종 요셉을 믿지 아니하라.”(교성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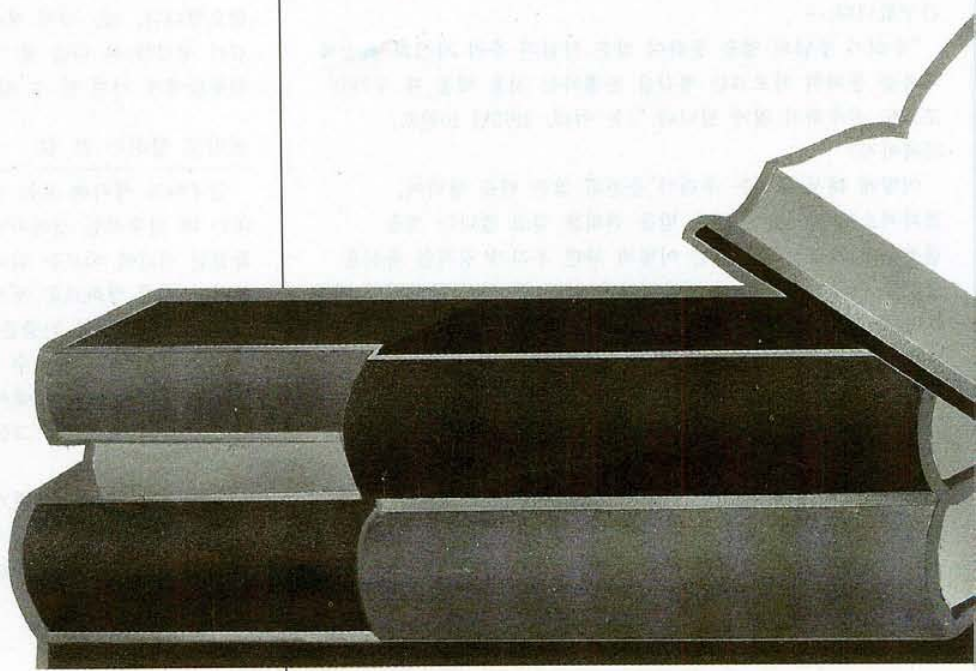
간증을 얻는 방법은 모로나이의 약속을 믿는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시현은 성스러운 시현이 조롱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시현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통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개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실제적인 시현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니파이일서 3장 30~31절에 기록된 대로 많은 기적적인 시현을 보았읍니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천사가 떠난 뒤,

“레이맨과 레뮤엘은 또 다시 불만스럽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레이맨을 우리들 손에 맡기시겠다 함이 어찌 가하라? 보라, 그는 힘이 셸 사내요, 오십을 거느리는 자라. 오십을 죽일 수도 있겠거늘 어찌하여 우리인들 죽이지 못하라?”

니파이는 이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읍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일도 알고 있으면서 어찌 이를 의심하겠느냐?”(니파이일서 4:3) 여기서 우리는 영의 부재로

**연** 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식별해 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지성보다도 더 크고 오감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이다.





인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지식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니파이일서 17장 45절에서 레이맨과 레뮤엘의 문제점을 정의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악을 행함에는 재빠르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도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

### 영적인 실패에 인내함

우리가 영의 증거를 인식할 줄을 모른다면, 사탄은 그 자신의 실력 행사로 우리를 완전히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의 증거를 인식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영적인 기대감에 이르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죄악감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확신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잘못 되었음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시했던 것이 후에 진정한 영적인 증거였음을 알아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때 보다는 스키타는 법을 배우면서 실패하게 될 때 더 많이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일어나서 웃어 보이고는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영을 인식하는 데서 실패를 하게 되면, 큰 죄악감을 느끼고는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립니다. 영적인 실패를 겪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며, 아무 탓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전문적인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하루 밤 만에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의 첫번째 알림을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닦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페이지)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십시오.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을 수없이 바스켓에 집어 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방법은 재반복하고 실패는 변화시켜 해봄으로써, 선수는 공이 자기 손에서 떠나는 순간 바스켓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영의 증거를 얻었을 때와 사탄이나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소망으로 허위의 것이 던져 졌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젊은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자 친구들에게 “나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증거를 받았읍니다.” 하고 말해 보았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영적인 나타내심이라기보다는 소망이라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러한 증거를 받는다면, 시험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결혼해 달라고 말해서 그녀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당신은 옳은 것입니다. 그녀가 부정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증거에 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녀도 온전하게 자신의 계시를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확인이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물문경을 읽을 때나 부모님이나 훌륭한 친구와 더불어 하늘의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느낌에 따르기를 배우십시오. 가능하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즉시 효과가 나며 확실한 성공의 공식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나 사태는 매일 변하게 되므로, 항상 성공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은 더 평온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더 상쾌받기 쉬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는 중에도 한 가지 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은 다만 진리에만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1. 나는 얼마나 잘 계명대로 생활하는가?
2. 나는 내가 영적인 것에 좀더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가?
3. 나는 참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4.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잘 생각해서 얻은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5. 나는 무감각해지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가?
6. 나는 정직하게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다.” 하는 대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영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 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비록 종교 관계의 강의를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계시를 인식하고 얻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생 걸리는 사업이지만, 그 유익을 얻기 위하여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적인 추구와 영의 속삭임 사이에 합당한 균형을 얻기 시작할 때 그 보상은 곧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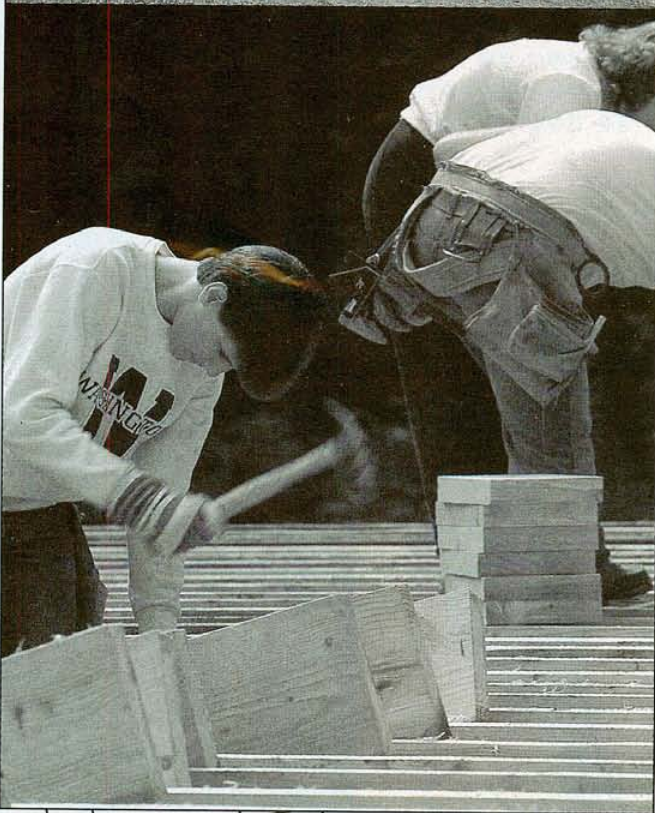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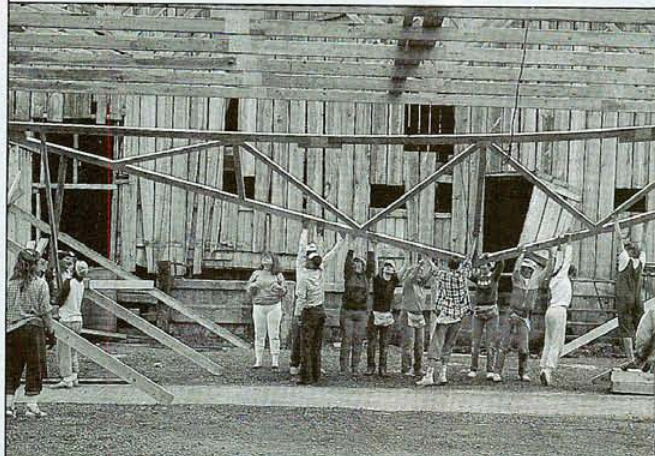




세상의 어느 곳을  
다녀 보든지,  
친구들이  
친구를 돕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수준의 것일 수도 있으나,  
추수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집짓기와 같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레드몬드  
워싱턴 스테이크의  
180명의 젊은이들은  
말일성도 가족을 위한 새  
집의 기본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비회원  
가족을 위한 헛간 창고를  
짓는 등 큰 일을 도와  
주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족들은 건축 비용을  
대거나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다. 예를 들면,  
말일성도 가족인, 워렌 및  
제이슨 데이지 형제  
자매와 그들의 여섯 명의  
자녀는 수동식 톱을  
사용하여 통나무를 잘라  
그들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만들어  
냈다.

#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집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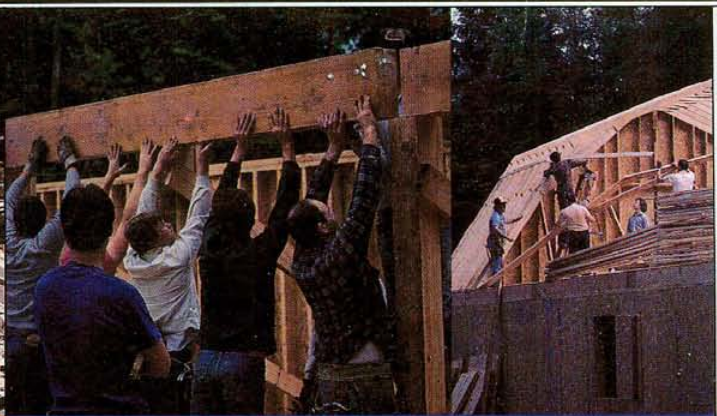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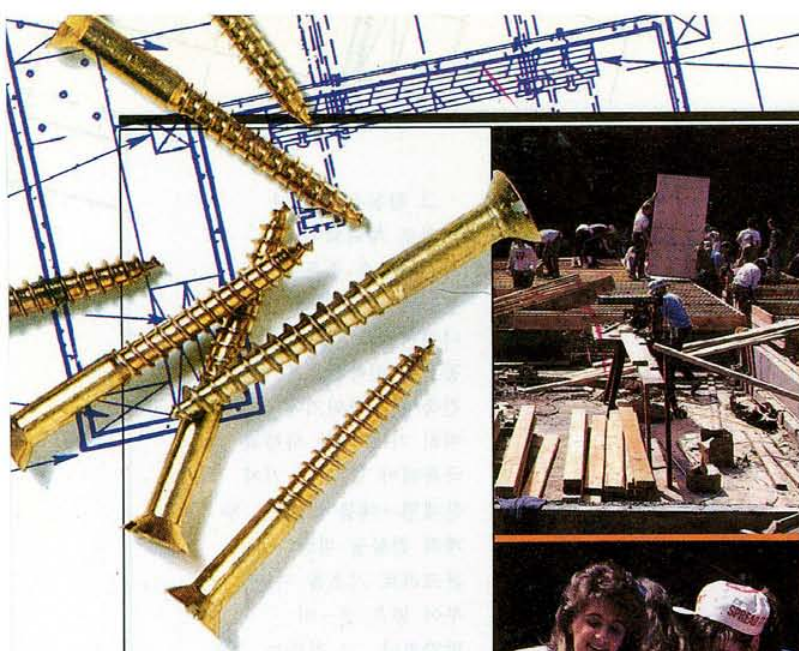


브라이언 케이 캘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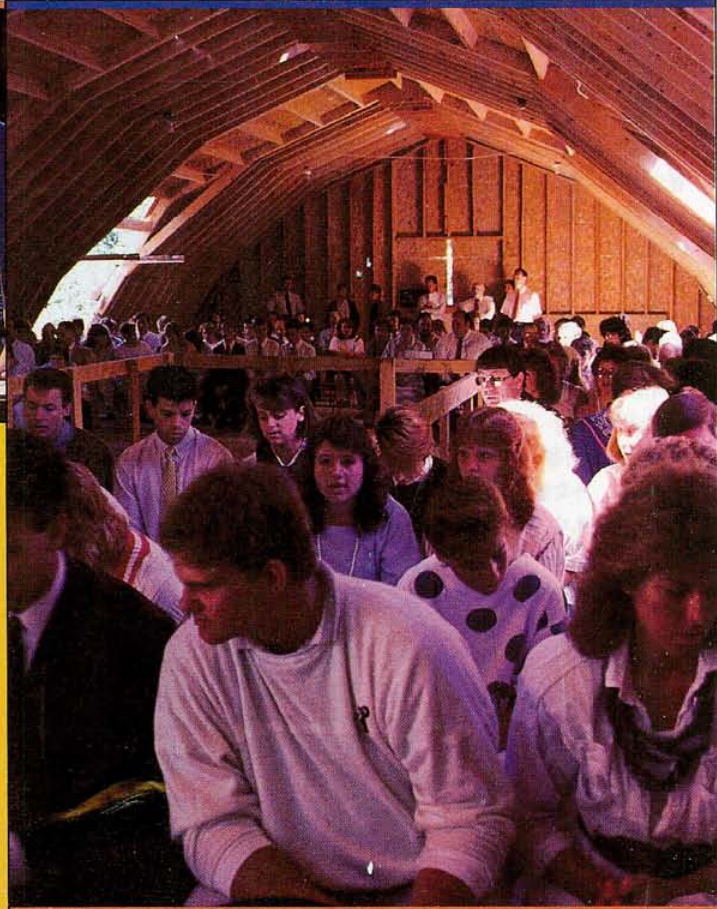
그 활동은 청소년  
대회로 계획되어  
청소년들은 훌륭하게  
관리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집과 창고를  
동시에 건축하도록 했다.  
건축이 시작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과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예를 들자면, 두  
개의 건물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를 미리  
부어 놓은 것-이  
많았지만, 그 결과는 그에  
들인 노력만큼 값어치가  
있었다. 그 활동으로  
인하여 선의와 우정이  
발현된 외에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집과 창고를  
세우는 일은 간증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러한 간증은  
열심히 일을 한 삼 일 후  
일요일에 가진 특별  
성찬식에서 나누게  
되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여러  
장의 사진에는, 대회가  
계획된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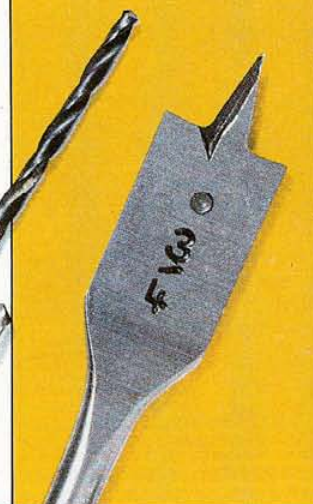
## 주택 건설 사업이 계획된 방법



**본** 청소년 대회  
활동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왜  
청소년들은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합시다!”라고  
말했는가? 특별한 청소년  
대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1.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결정함.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의  
보좌가 청소년 대회의  
아이디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 보라는

**삼** 일간의 힘든 일이  
끝난 후 그들이  
지은 집에서 열린 특별  
성찬식에서 짐을 지으면서  
얻은 간증을 나누었다.



88  
2월호  
48

지명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활동을 검토해 보던 중,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들을 뜻깊고 간증을 키워 주는 활동에 참여시키는 대신에 청소년을 즐겁게 해주려는 데 주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봉사 활동을 위한 그녀의 추천 사항은 스테이크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활동이 될 만한 것을 찾아 냈다.

2.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문가를 택함.

일단 과업이 결정되자, 스테이크에서는 건축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적인 도움을 찾았다. 스테이크 내의 새로운 부부인 테너 부부는 그 과업에 필수적인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건축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그 건축 설계는 지역 정부의 건축 설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테너 형제와 다른 건축가가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나자 지붕의 형구 제조업자가 자기가 그것을 조립할 수 없으니, 청소년 대회가 계획된 후 삼일 후에야 그것을 배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너 형제는 형구를 제 시간에 대 오도록 제조업자와 협상을 벌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3.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함.

지역 내에서 카톨릭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잘 알려진 와드 로니 부부는 말일성도로부터 도움을 제공받는 것을 거절할지도 모르지만, 로니 부부와 테이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되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 로니씨에게 접근하여 폭풍에 허물어진 외양간을 세워 주겠다고 제시하자, 그는 감동을 받았다.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노력의 결과로, 로니 가족은 그들의 딸을 스테이크 청년 야영 대회에 참석하게 했으며, 그들의 농장에서 스테이크 활동을 하게 했으며, 스테이크 청소년을 위한 장학 기금을 내 놓았다.

4. 행사가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이면, 신문 및 텔레비전 보도를 권유 함.

텔레비전과 신문사에 두 사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그들은 몇 분 동안 기자를 내 보내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꺼려 하던 기자들도 청소년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깊은 인상을 받고 삼 일 동안 함께 지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호의적인 기사가 나왔다.

5. 홍보하고 모집함.

스테이크 내의 청소년들은 봉사를 전제로 한 대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는 그 활동을 설명하는 노년의 모임을 갖고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은 토드 소년은 후에는 오히려 열성을 보여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건축업자들이 그에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여 주면, 그는 마치 전문적인 건축가처럼 일했다. 토드는 또한 외로운 소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고 그에게 연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 두 소년들은 그들 사이만이 아니라 어른들과도 우정을 맺었다.

6. 자주 계획 모임을 가짐.

활동 계획 위원회는 대회를 갖기 전 삼 개월 동안 이 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가졌다. 모든 계획이 마련되고 계획에 따라 준비 사항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임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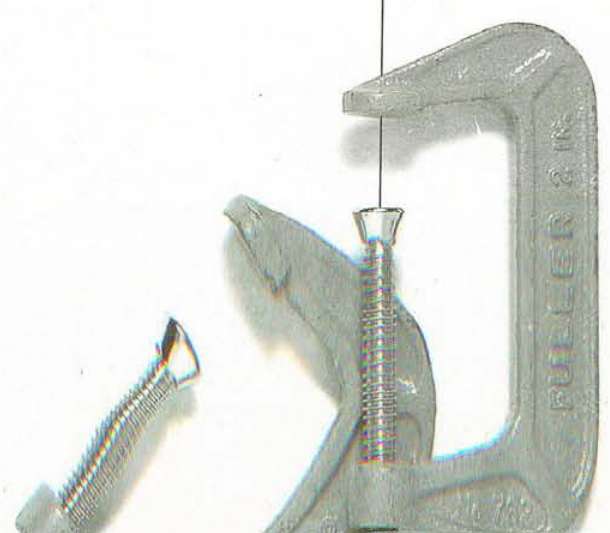
7. 저녁 시간을 위한 오락 활동을 계획함.

청소년들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그들은 무용이나, 캠프 파이어 주변에 둘러 앉아 노래하기, 기름칠한 막대에 먼저 오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여력이 남아 있었다. 저녁에 오락 시간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 더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고 온다. □

편집자 주 : 특별히 성공적인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대회를 가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에게 그 기사를 보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를 가진 직후에 기사와 더불어 여러 장의 컬러 사진이나 트랜스패어런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와드/지부, 스테이크/지방부와 함께 여러분이 인용하는 사람들의 성명과 직책(직책을 알은 경우)을 명기해 주십시오. 기사와 사진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 project, Tambuli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c., Ground Floor, Country Space Building I, Sen. Gil J. Puyat Avenue Ext.,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P.O. Box 2339 MCCPO.

또는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빛 담당자.





폴투갈